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8년 9월 11일 화요일 제1973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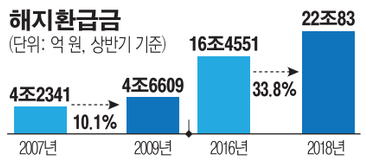
보험 깨는 서민, 금융위기보다 3배 늘었다

올 상반기 해지환급금 22兆 훌쩍… 2년 前보다 34% 증가
'불황형 대출' 약관대출 47.6兆… 10년 前 증가세와 비슷

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여윳돈이 줄자, 최근 2년간 보험 해약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표적 '불황형 대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약관) 대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약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22조83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의 16조4551억 원보다 33.8% 증가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몸살을 앓았던 2008년 전후 상황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2009년 상반기 해약에 의한 해지환급금은 4조6609억 원 수준이었다. 2년 전인 2007년의 4조2341억 원에서 10.1% 늘어난 수준이지만, 최근 변동치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최근 2년간 보험 해약에 따른 환급 건수는 금융위기 직후 2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 가입자가 해약한 보험은 총 571만4164건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 사이 271만7950건 대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보험을 깨는 건수가 당시보다 두 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불황형 대출'인 약관 대출 증가세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약관 대출 잔액은 작년 상반기 44조5562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47조5800억 원으로, 1년간 6.8%나 증가했다. 2009년 상반기(30조3473억 원) 대비 2010년 상반기(32조6304억 원)엔 7.5% 증가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여성이 경제를 살린다 – 성 다양성 포용으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
9월 19일(수) 8:30~13:50
●장소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여성금융인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독상공회의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여성이 경제를 살린다– 성 다양성 포용으로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공적연기금의 최고투자책임자(CIO) 히로미즈노(水野弘道) 씨가 함께합니다. 히로 미즈노 CIO는 '일본 여성의 성장 모멘텀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특별 강연에선 한독상공회의소 잉그리드 드레첼(Ingrid Drechsel) 의장이 유럽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합니다. 블룸버그코리아 이현주 팀장은 자사가 발표하고 있는 GEI(Gender-Equality Index · 성 평등 지표)를 소개합니다.

●주최 · 주관 : 여성금융인네트워크 · 이투데이
●후원 :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 한독상공회의소

반기문·빌 게이츠 기후변화委 이끈다

네덜란드서 내달 출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등 세계적 명사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 전 총장과 게이츠 MS 기술고문이 다음 달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설립되는 '기후변화국제위원회'를 이끌기로 했다고 네덜란드 정부가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반 전 총장은 네덜란드 위원회 설립에 대해 "기후 적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위한 비판적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세계자원연구소와 협력해 운영하고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한 글로벌센터가 공동 운영자로 참여한다.

한편 옐런 전 의장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탄소세를 지지한다고 공언했다. 2월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 옐런은 미국이 탄소세 도입으로 지구온난화 위협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초당파 단체인 기후리더십위원회(CLC)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옐런 전 의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그는 로열더치셸, AT&T, 펩시코, 프록터앤드갬블(P&G) 등 대형 기업들이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소세와 다른 부분에서의 일정 정도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기업들에도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ronsoyeon@

강경화 장관, 비건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도 평양 가자"… 총수급 포함 '주목'

靑 남북회담 동행 요청

청와대가 경제인들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하면서 방북 수행단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단체 대표와 재벌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유력 인사들이 상당수 방북단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재계 관계자는 "과거 1·2차 남북회담 당시 방북단 규모와 구성을 고려하면 이번 방북단에 경제·사회·문화계 인사는 40~50명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중견·중소기업 대표들도 방북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1·2차 방북단 명단을 고려하면 경제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남북경협 사업의 대표 격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LG,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과 대북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두산,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GS그룹 등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도 관심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인도 현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 부회장을 만난 바 있다. 이 부회장 대신 최근 삼성의 대외 얼굴 역할을 하는 윤부근 부회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가 방북단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부담스러운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배제됐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포함될 경우에도 혹시 모를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지만 대북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리스크 역시 큰 것이 사실"이라며 "당장 수출기업은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방북단 명단에서 빼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메르스에 추석대목 '격리'될라

유통·관광업계 초비상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유통·관광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015년 첫 발생 당시 겪은 최악의 내수 부진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7일 쿠웨이트에서 귀국한 A(61) 씨가 메르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 씨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115명 중 현재 50여 명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메르스가 처음 발생했던 2015년 5월 이후 국내 소비와 가계의 체감경기는 급속히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015년 11월 발행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 사망자가 처음 발생해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6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각각 12.6%, 14.7%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쇼핑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는 7.2% 증가해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연히 드러났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는 그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으며, 메르스로 인한 한국 관광산업 피해 규모는 최대 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실물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3년 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자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점포와 본사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실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매장 내에 손 세정제 비치, 쇼핑 카트 소독 등 기본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숙박과 음식의 경우 내국인 이용객 감소 외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당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 8월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더뎠던 터라 관련 업계의 고민이 크다. 호텔·관광업계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준비하며 메르스 환자의 확산 여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편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자체에서도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족 대이동으로 메르스 확산 가능성과 소비 불안심리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노동시간 단축, 고용창출 기업에
정부 지원이 함께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정부가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집중 지원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신규채용 1명당 월 60~80만원 업종에 따라 1~2년간 지원
●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재직자의 임금을 보전한 경우 월 최대 40만원 업종에 따라 1~2년간 지원
*신규채용 1명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은 20명까지 지원
● 또한, 규모별 법정시행일 보다 6개월 이상 조기단축하는 경우 법정시행일까지 신규채용 인건비 최대 월 100만원, 지원기간 연장 등 우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핀테크 전문가들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AI가 금융감독 업무 꾜 최초 MRR 추진"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 시범사업〉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 별관에서 열린 '핀테크 타운홀 미팅-핀톡(Fin Talk)' 행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국 '레그테크 산업' 투자 확대
금감원도 4분기 발전 협의회 발족
윤 원장 '핀테크→레그테크→섭테크'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강조
테스트 거쳐 내년 현장 도입하기로

"금융법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0일 핀테크 회사 70곳의 120명 전문가와 만난 자리에서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MRR)' 시범사업을 아시아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RR는 금융 관련 법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윤 원장은 "금융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회사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금융 규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감원이 먼저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레그테크(RegTech)' 산업의 일환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업무를 IT 기술을 통해 비대면화·자동화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KPMG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억7000만 달러 수준이던 레그테크 투자는 올 상반기 1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올해 MRR 시범사업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외에도 4분기 중 학계와 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레그테크 발전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특히 윤 원장은 핀테크에서 레그테크를 거쳐 섭테크(SupTech)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이다.

윤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같이 섭테크를 활용하면 방대하고 난해한 금융정보와 서비스를 자동으로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섭테크와 관련해 △AI 약관 심사 시스템 시범 구축 △금융 감독 챗봇(Chatbot) 시범 구축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내에 파일럿 테스트로 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부터 실제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핀테크 기업들은 금감원의 인허가 처리 지연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등 애로사항을 말했다. 또 핀테크 정책과 철학 등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전략협의회와 현장 자문단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감독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발포주
위스키 저도주

주류시장 新트렌드 이끄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40대 젊은 피' 잇단 새로운 시도…필라이트·17.2도 참이슬 '빅히트'
4년 만에 위스키 신제품…한국인 맞춤 '33도' 국내 최저 도수 승부

박태영〈사진〉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40대 젊은 경영자답게 주류 시장에서 연이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기존 국내 맥주 업계에 없던 '발포주'를 도입하는가 하면 저도주 트렌드에 따라 소주 도수를 낮췄다. 또 최근에는 국내 위스키 업계에서 가장 도수가 낮은 제품을 선보이며 그간 약세로 지목됐던 위스키 부문 강화에도 나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4년 만에 '더 클래스 1933'과 '더클래스 33'을 출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두 제품 모두 알코올 도수가 33도로 국내 위스키 중 최저 도수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위스키 시장은 부드러운 맛과 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저도주 트렌드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위스키 시장이 5.4% 감소한 것에 비해 저도 위스키 시장은 25.5%나 성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신사업개발센터 등 생산부문을 총괄하는 박태영 부사장의 지휘 아래 4년간 노력한 끝에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국내 최저 도수의 위스키를 만들었다. 위스키 개발 및 블렌딩 과정에는 93년 전통의 스코틀랜드 디스텔사의 '위스키 마스터' 커스티 맥컬럼과 함께 이례적으로 국내 최고 전·현직 위스키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맛과 향, 최적의 목넘김을 구현해냈다.

박 부사장은 위스키 외에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도 변화를 주도했다. 수년째 부진한 맥주 사업의 회생을 위해 발포주를 도입했다. 작년 4월 '1만 원에 12캔'이라는 가성비를 앞세운 '필라이트'는 출시 6개월 만에 1억 캔, 1년 만에 2억 캔 판매를 돌파하는 등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성과가 맥주의 주 소비처인 요식업이 아니라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가정 시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한다.

종전보다 도수를 0.6도 낮춘 17.2도의 소주 '참이슬 후레쉬'도 같은 달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저도화 추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1년 사이 소비자의 도수 선호도가 크게 하향된 점에 주목, 2년간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테스트와 분석을 진행해 도수를 낮췄다.

패키지도 기존 직사각형 라벨 대신 이슬을 형상화한 이형 라벨을 적용해 차별화하면서 새로운 참이슬은 99일 만에 5억 병 돌파라는 리뉴얼 이후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세웠다. 2분기 전체 참이슬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5%가량 증가했다.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도수를 낮추자 경쟁사인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도수를 17.5도에서 17도로 낮추는 등 저도화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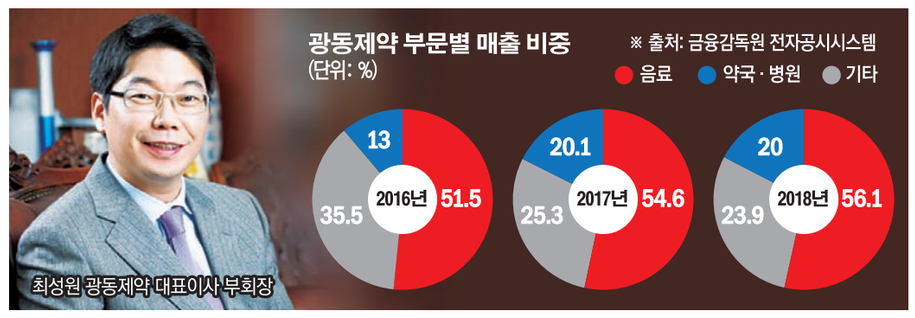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박 부사장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이다 보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가 종합주류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간 위스키는 구색만 갖춰진 수준으로, 이번 신제품 출시는 저도주 트렌드에 맞춰 앞으로 위스키 사업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의약품 힘주는 광동제약 최성원…음료와 투트랙

〈대표이사 부회장〉

음료로 외형성장 2년 연속 '1조 클럽'
"간판만 제약사" 지적 딛고 정체성 찾기
加소염진통제 독점 계약 등 약품 강화



2년 연속 매출액 1조 원 돌파에 성공한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이 제약회사로서 정체성 찾기에 나섰다. 의약품 부문을 강화해 의약품과 음료부문의 동반 성장을 일구겠다는 전략이다.

광동제약은 캐나다 제약사 안티스 테라퓨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신약후보 물질 'ATB-346'을 한국에 독점으로 들여온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선수금(업프런트) 11억 원을 포함해 약 111억 원(1300만 캐나다 달러) 규모다.

안티브 테라퓨틱스는 ATB-346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계약에 따라 ATB-346 국내 개발 및 판매 독점권한을 갖는다.

광동제약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연간 50억~60억 원 규모다. 이번 소염제 라이선스 확보에 투자한 금액은 이 금액의 2배에 달한다. 제약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최 부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광동제약은 신약의 국내 도입과 파이프라인 확충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팰러틴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여성 성욕장애 치료제 신약후보 물질 '브레멜라노타이드'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최 부회장은 1969년생으로 최수부 광동제약 창업주의 외아들이다. 창업주가 2013년 별세하자 그해 7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2015년부터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외형 성장을 목표로 세운 최 부회장은 식음료 유통 사업에서 공격적 행보를 이어갔다. 광동제약의 대표 상품 '비타500'은 판매량 55억 병을 돌파하며 국내 비타민 음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다. 이 같은 성장 전략 아래 최 부회장은 2016년 사상 첫 매출액 1조 원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식음료 유통 사업이 차지하면서 최 부회장은 광동제약이 간판만 '제약'을 달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짊어져야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음료부문 매출 비중은 2016년 51.5%, 2017년 54.6%, 2018년(상반기) 56.1%로 증가 추세다.

그런 광동제약이 이번에 의약품 부문 투자를 늘리면서 의약품과 음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회사는 제약산업이 전문의약품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따라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R&D와 영업력 등 핵심 역량 육성에 돌입했다.

일반의약품 매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9월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을 인수한 뒤 6월 재출시한 1990년대 인기 생약소화제 '솔청수'는 첫달에만 70만 병이 판매됐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R&D 투자비용은 최 부회장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지난해 광동제약의 연구개발비는 62억 원으로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장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평균 9%다. 광동제약과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한미약품이 지난해 1706억 원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25분의 1 수준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바이오헬스·SW·IP 분야, 2022년까지 10만 일자리 창출”

7차 일자리위원회 대책 발표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일자리 4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혁신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고 지식재산(IP) 분야에서도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한다.

바이오헬스 4만2000개

300억원 규모 초기 창업기업 펀드

年 900개 창업 지원·전문인력 육성

소프트웨어 2만개

‘SW중심대학’ 내년 35개로 확대

AI 등 8대 분야 5400명 인재 양성

지식재산 4만6000개

IP 창출·보호·활용 풀패키지 지원

기업가치 1조 ‘K-유니콘’ 8개 육성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SW, IP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헬스 분야와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바이오헬스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간 단축에 75억 원,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에 27억 원,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확대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창업기업 펀드를 300억 규모로 시작하고 신약개발 등을 위한 펀드를 내년에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맞춤형 정밀의료 R&D 등에 24억 원, 113억 원이 각각 투자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관련 일자리 4만2000개를 만들고 연간 900개의 벤처창업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1만 명 양성도 추진한다.

SW에서는 SW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과 SW 산업 생태계 혁신의 투트랙 접근을 통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심의 유망 SW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

세부적으로는 SW 중심대학을 내년에 35개로 확대하고 AI, 블록체인 등 8대 분야에서 2021년까지 5400명의 인재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연 500명 규모의 최고급 SW 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설립된다. SW 고성장클럽 200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SW 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을 통한 불합리한 발주관행과 근로환경 개선,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IP 분야에서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특허 출원 건수 기준)이라는 점을 활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IP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12개교),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확대(57개) 등을 추진한다.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해 K-유니콘 8개를 육성하고 관련 R&D도 5년간 1880개 과제로 확대한다. 82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조성과 AI기반 특허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혁신성장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네이버 CIC ‘그룹&’ 출범… 美 공략 가속화

〈사내독립기업〉

‘밴드’ ‘카페’ 담당 그룹커뮤니티 조직

올 들어 세 번째 사내독립기업 개편

빠른 의사결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

네이버가 그룹커뮤니티 조직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네이버가 올 들어 내부 조직을 사내독립기업으로 개편한 것은 세 번째다.

네이버는 ‘밴드’와 ‘카페’를 담당하는 그룹커뮤니티 전문조직 ‘그룹UCC’ 셀을 사내독립기업으로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명칭은 ‘그룹&’으로 변경되며 김주관 그룹UCC 셀장이 대표직을 맡게 된다.

그룹&은 밴드와 카페 등 네이버 커뮤니티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내독립기업이다. 밴드는 모바일 커뮤니티 내에서 최적화된 모임 경험을 제공해 왔으며 카페는 15주년을 맞이했을 정도로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뿐만 아니라 게임 분야에 특화된 ‘플러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은 우선 미국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룹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시장은 현재 ‘방과 후 활동’이 활발해 젊은 세대에서 커뮤니티 기능이 주목 받고 있다. 밴드는 미국 내 월간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의 단체와 공식 커뮤니케이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성장 기반도 마련했다.

네이버가 사내 독립기업을 출범시킨 것은 올해 세 번째다. 네이버는 2월 검색기술 서치조직과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클로바조직을 통합해 ‘서치앤클로바’로 출범했다. 또 5월에는 블로그·포스트·지식인 등 UGC서비스 분야인 아폴로 셀 조직을 사내독립기업으로 개편했다.

사내독립기업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용이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사와 재무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점이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더 빠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사내독립기업 조직은 앞으로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 개별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는 2015년 웹툰을 사내독립기업으로 독립시킨 뒤 2017년 분사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민한 조직 운영과 혁신적 시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AI 로봇, 맛있는 빵 추천해줘~”

LGU+·파리크라상 손잡고 ‘스마트베이커리’ 시범운영

SKT·KT도 편의점·호텔 등에 접목 AI 사업영역 확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활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편의점에 이어 이번에는 베이커리에 인공지능(AI)을 적용, 고객의 편의를 높인다.

LG유플러스는 파리크라상과 손잡고 AI·IoT(사물인터넷)·로봇 등 최신 ICT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베이커리’ 구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파리크라상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7개 점포에서 10월 말까지 스마트 베이커리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 베이커리 시범서비스는 네이버의 AI 플랫폼인 ‘클로바’가 탑재된 LG전자 ‘클로이 홈’ 로봇을 활용해 점포를 방문한 고객에게 △환영인사 △제품 홍보 △제빵·케이크류 소개 및 추천 △아이들을 위한 만화 퀴즈 놀이 등을 제공한다.

로봇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음성으로 물어보거나 화면을 터치하면 빵, 케이크 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머리를 쓰다듬고 “파리바게뜨에서 맛있는 빵 알려줘”라고 음성으로 말하면, 로봇이 이를 인식해 “지금 파리바게뜨에서 핫한 빵을 알려드릴게요~”라는 답변과 함께 화면상에 제품 정보를 보여준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AI 기술을 편의점과 호텔 등에 접목하면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SK텔레콤은 7월,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 전국 100개 매장에 ‘누구’를 도입했다. 누구는 편의점 CU 계산대 옆에 배치돼, 근무자들이 묻는 매장 운영 관련 약 200여 가지의 질문에 대답한다. SK텔레콤은 또 비스타 워커힐 서울 44개 객실에 적용해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올 3분기까지 전체 객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KT도 같은달 국내 최초로 AI 호텔인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을 선보였다. 이 호텔 투숙객은 음성과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조명과 냉난방 제어·객실 비품 신청·호텔 시설정보 확인·TV와 음악 제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법안 1만4885건 쏟아내고 처리는 고작 10%

20대 국회 하루 평균 18건 발의… 의원 입법이 90% 차지
'의원입법' 발의건수 경쟁으로 품질 낮아… 가결 비율 5%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1만4885건에 이르지만 법안 처리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885건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만3464건으로 90.45%를 차지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790건(5.31%)이었고 제출된 법안에 대안을 반영해 상임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이 631건(4.24%)이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뒤 835일간 하루 평균 17.8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15대 국회(1996년~2000년)에서는 195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16대 국회(2000년~2004년) 2507건 △17대 국회(2004년~2008년) 7489건 △18대 국회(2008년~2012년) 1만3913건 △19대 국회(2012년~2016년) 1만7822건 등으로 급증했다.

20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발의 종류	건수	비율
의원발의	1만3464	90.45%
정부발의	790	5.31%
위원장발의	631	4.24%
합계	1만4885	

법안 발의 건수가 늘어난 반면 법안 가결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버려지는 법안이 늘고 있는 것이다. 15대 국회에서 57.41%에 달했던 가결 법안 비율은 16대 국회 37.81%, 17대 국회 25.57%, 18대 국회 18.35%, 19대 국회 15.69% 등으로 낮아졌다. 20대 국회에선 현재까지 가결된 법안은 1510건으로 발의된 법안의 10.14%에 불과했다. 일부 폐기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1만995건(73.87%)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남은 회기 동안 하루에 18건씩 법안을 가결시켜야 처리할 수 있는 숫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법안 중 55.04%에 달하는 9809건의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휴지통에 버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입법이 증가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 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 의원들의 발의 건수 경쟁으로 법안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가결 비율이 21.65%인 반면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 비율은 5.26%에 그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결률이 가장 높은 법안의 형태는 각 상임위원장이 대안입법으로 발의한 경우다. 상임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내용이 비슷한 여러 법안을 병합해 대안입법 형태로 만들어 제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비율이 압도적이다.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발의 법안 631건은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세종 브리핑

"추석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는 9~10월에 소비자 이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해당 분야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5년 1348건에서 2017년 1761건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중소중견 화장품 업체 수출 상담

국내 화장품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대규모 수출상담회가 미국 현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1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뉴욕과 올랜도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수출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2013년 12억4300만 달러에서 2017년 49억5900만 달러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가별 수출 비중이 작년 기준 중국 39.1%, 홍콩 24.6%, 아세안 11.0% 등으로 중화권에 편중돼 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860억 달러 규모)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 점유율은 5.5%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현장실습 대학생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해 현장실습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는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16만 명의 대학생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이를 통해 모든 현장실습생 22만 명으로 늘어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된다. .

세종=박은평 기자 pepe@

文대통령 술잔 대신 비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대선 때 대변인… 인연 화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끈끈한 인연이 화제다. 진 후보자는 2012년 제 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변인을 맡은 데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문의 입' 역할을 했다. 진 후보자는 문 대통령(당시 후보)을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술자리에서 문 후보의 술잔을 대신 비울 정도로 끈끈한 사이다.

진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민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민변 부산지부 창립 멤버인 문 대통령은 1991년 부산·경남 지역 민변 대표를 맡아 20년 넘게 민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대통령 당선 직후 탈퇴했다. 현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민변 출신의 공직 기용은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데다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진 후보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만든 '더미래' 모임의 창립 멤버다. '더미래'는 2014년 2월 진보·재선 의원 22명이 모여 만든 모임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더미래연구소 초대 이사 출신이며,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전 청와대 대변인)과 진성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민정수석), 은수미 성남시장(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도 '더미래' 출신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아베 총리 만난 이낙연 총리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1일 오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일 양자회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정은, 트럼프에 2차 정상회담 요청

교착상태 북미관계 풀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받았다"면서 "친서의 주요 목적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섰다는 점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특사단의 외교적인 성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이 5일 특사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제시한 것이 꽉 막힌 국면에 숨통을 틔웠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 트위터에 "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화답하고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치매공공후견제 시행…노인복지 관련 법인도 가능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치매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치매와 민법상 후견제도,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 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면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치매 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무역전쟁 두 달째…中 물가 2.3% 급등

물가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한동안 중국에서 잠잠하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지 두 달째인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3% 뛰었다. 중국의 물가 지표인 돼지고기에서부터 채소, 휘발유까지 안 오른 게 없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부채 폭탄, 금융시장 불안, 여기에 인플레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올 3월 출범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2기가 순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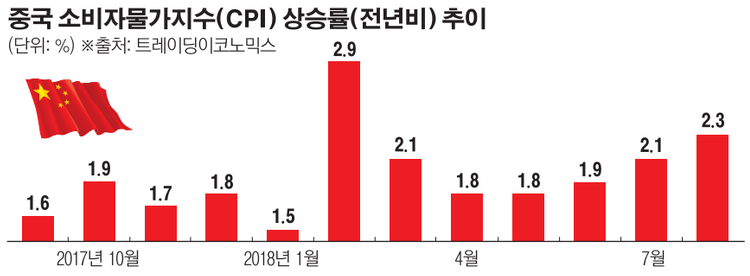
10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8월 CPI는 전년 대비 2.3% 올랐다. 상승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와 전월의 2.1%를 웃돌았고, 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국 내 이코노미스트들은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이라고 지적하지만 투자자들과 중국 서민들은 8월 물가 지표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베이징에 사는 한 30대 가장은 NYT에 "소득의 3분의 1이 집세로 나가고 있다. 매월 식비도 오르고 있다"며 "돈을 절약하기 위해 매끼를 집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대부분의 중산층이 물가 상승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토로했다.

NYT는 이런 인플레는 시 주석에게도 고민거리라고 지적했다. 당국자들이 물가 상승 억제와 성장 둔화 사이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내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비) 추이
(단위: %) ※출처: 트레이딩이코노믹스



실제 장바구니 물가 더 올라
채소 21% 돼지고기 17%↑
수입 가격 높아져 계속 상승
도시 주택 임대료 17% 급등

NYT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인플레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요한 이슈였다. 물가 문제는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1989년 톈안먼 사태도 인플레와 무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의 10년간 인플레는 중국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수년간의 막대한 투자로 석탄 채굴에서부터 철강, 조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과잉 설비가 발생,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과잉 설비와 생산을 감축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중국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함께 임금도 빠르게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8월 중국의 실제 인플레율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조사그룹인 위그럼캐피털어드바이저스는 8월 인플레율이 실제로는 연 3.7%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인들의 장바구니에서 비중이 가장 큰 돼지고기는 7월 중순 이후 17%, 채소 가격은 21%나 각각 올랐다.

설상가상 1년 새 크게 오른 국제유가도 중국에는 큰 부담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데다 중국의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크게 떨어졌기 때문. 원유는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입 비용은 늘어난다. 주택 비용도 상승하고 있다. 임대료는 전국 50개 대도시에서 1년 전보다 평균 17% 올랐다. 임대 주택은 가격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수입이 빠듯한 젊은 층 사이에 큰 인기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중국 전문가인 루이스 쿠이즈는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중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 속도는 떨어질 수 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의 통계는 8월 말까지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9월에는 인플레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수경 순회특파원 sue6870@

中企 하청 주는 스마트폰 부품 공급망 취약

애플·삼성 중소 공급사 절반
비용 5% 증가하면 적자 신세
수출 중단 시 28% 현금 부족

세계 스마트폰 공급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화로 생산 구조가 얽히고설키면서 위기에 취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 붐이 꺾이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스마트폰 공급망 내 중소기업이 약한 고리라고 짚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 기업들은 그동안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왔으나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거쳐 생산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공급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삼성은 베트남에, 애플은 중국에 주요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중국 기업 중에서도 화웨이는 부품의 내부 제조를 선호하나 샤오미와 오포는 국내외에서 아웃소싱을 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스마트폰 구성 요소의 33%는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가 17%, 싱가포르가 16%를 차지했다. 메모리칩은 한국과 베트남이, 시스템 칩은 말레이시아가 공급하며 디스플레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다. 퀄컴과 같은 기업은 지식재산권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판매한다. 이러한 부품들을 중국 공장 근로자가 조립하는 구조다.

글로벌 공급망의 가장 큰 약점은 중소형 기업들이 시스템의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삼성과 애플 등 대기업은 위기를 극복할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나 중소 공급업체들은 약간의 비용 증가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일부 기업이 이윤 대부분을 차지해서다. 애플과 42개 대형 공급업체 중 13개사가 애플 공급망의 총이익 중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애플과 삼성, 샤오미 등의 공급업체 중 132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52%는 관세 인상 등으로 비용이 5% 증가하면 적자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는 ZTE와 같은 수출 중단을 겪으면 단기부채, 임금 지급 등으로 100일 이내에 현금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 인건비가 오르거나 무역 긴장감이 심화하면서 중소기업이라는 약한 고리가 끊기면 전체 스마트폰 공급망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미 중국의 저임금 노동 문제는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격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공급망이 무너지면 아시아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미국과 동아시아 주식시장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자국에 더 많은 공장이 세워지길 원하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기술 구축을 원하고 있다면서 공급망이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이 낮아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이내에 업계 시스템이 지금보다 작아져야 하고 공급업체는 생산을 통합하며 자동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캘리포니아 2045년까지 전력 100% 무탄소 생산



10일(현지시간)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새크라멘토 주 정부 청사에서 주의회 상원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45년까지 주내 모든 전기를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세계 5위 경제규모인 캘리포니아주는 단계적으로 발전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제거할 방침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새크라멘토/AP연합뉴스

구글·애플·페북·아마존 재생에너지 투자 경쟁

전력소모 큰 데이터센터 건설
페북 "100% 재생에너지 사용"
아마존, 직접 풍력발전소 운영

미국 IT 대기업 4곳, 즉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이른바 'GAFA'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독점하는 GAFA가 에너지 산업의 구도도 바꾸려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신문은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건설 열기가 재생에너지 투자로 이어지고 이에 발전 단가가 낮아지는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020년까지 회사가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최근 선언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5년간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업체와 25건의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페이스북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한 기업으로 그 누적 규모는 8월 말 현재 3기가와트(GW)로, 원자력발전소 3기 분에 해당한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재생에너지를 구입한 기업은 애플이었고 구글이 그 뒤를 이었다.

아마존도 지난해 텍사스에 풍력발전소인 '아마존 윈드팜 텍사스'를 가동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따르면 세계 전력 소비량의 1.4%를 데이터센터가 차지한다. 사물인터넷(IoT)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보급 확대로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할 것인지가 IT 기업들의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투자은행 라자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발전 비용은 1메가와트시(MWh)당 35~60달러로, 가스발전의 42~78달러를 밑돌았다. 풍차 대형화 등으로 발전 효율이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10일(현지시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고등지방법원에서 투자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기 전 판사들이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브라운슈바이크/AP연합뉴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92억 유로 손배소

주주들, 주가 하락 보상 요구
미국 이어 독일서 재판 돌입

'디젤게이트'로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이 92억 유로(약 12조 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폭스바겐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날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시스템 불법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이를 미리 공시하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안드레아스 틸프는 브라운슈바이크 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리는 폭스바겐이 2008년 6월까지 미국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만들 수 없었음을 말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5년 9월 폭스바겐의 위법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이 미국 규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2015년 9월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후 폭스바겐 주가가 40% 가까이 하락한 것에 대한 보상액 92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데카투자펀드가 제기했으며 총 소송 건수는 1670건이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게이트로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140억 달러(약 15조 원)를 배상한 바 있으나 독일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일반적이나 독일 법은 올해 초까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소송은 단지 폭스바겐이 주주와 자본시장에 대한 공개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회사는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BBC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지금까지 274억 유로의 벌금을 냈다. 독일 당국은 폭스바겐과 포르쉐, 아우디의 전 임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주혜 기자 winjh@

오르락내리락 방향성 잃은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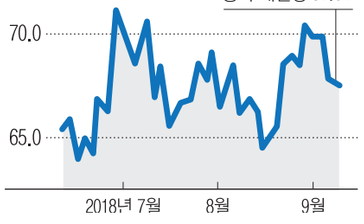
선진국 수요 탄탄하지만
'통화 위기' 신흥국 소비 위축
상승·하락 요인 공존해 혼돈

국제 원유시장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제유가가 최근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연출하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올가을 어느 방향으로 유가가 움직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10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0.3% 하락한 배럴당 67.54달러로 마감했다. WTI 가격은 지난주 2.9% 급락해 주간 기준으로 7월 이후 2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달 중반 이후 7% 이상 오르면서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나서 가을로 접어들자마자 시장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가격도 지난달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후 이달 첫 주는 1% 하락으로 마감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가 관련 신호가 상충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WSJ는 풀이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출처: WSJ



선진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원유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원유 수출이 급감하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반면 신흥시장이 최근 통화 가치 하락과 증시 약세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삭소방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대표는 "신흥시장은 원유 수요 증가를 이끈 핵심이었다"며 "여전히 유가가 오를 수 있지만, 이는 미국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원유 소비를 약화시키고 원유 수요 증가세도 유가 상승과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올가을 유가가 어디로 향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다.

WTI 가격은 4월 이후 배럴당 64~74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브렌트유는 71~79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뉴욕 소재 원자재 전문 투자관리회사인 어겐캐피털의 존 킬더프 매니징 파트너는 "신흥국 위기에도 원유 수요는 매우 강하다"며 "연말에 WTI 가격이 배럴당 8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14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전문가 대부분은 WTI 가격이 배럴당 85달러까지 치솟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속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증산해 그 충격을 덜 수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팍팍한 살림에… 보험가입 꺼리고 해지환급금 '역대 최고'

짙어지는 경기불황 보험지표

초회보험료 5.2兆… 2년 만에 36.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

새 회계기준 대비·경기악화 영향 등
저축성 보험 초회보험료 62% 급감

'신계약, 초회보험료, 해지환급금,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약관대출 등.'

경기 변동과 맞물려 움직이는 보험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을 꺼리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며, 보험사를 통한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표들은 2008년 금융 위기의 '암흑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상품의 기본 구조는 미래의 특정 사건이나 시점을 대비해 현재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미래를 대비해 돈을 쓰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들을 해지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적은 생명보험사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경기 침체에 서민들의 최후 자금까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미래 대비 여력 없어"… 초회보험료·신계약 급감 = 11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보사들의 초회보험료는 5조2692억 원이었다. 2016년 상반기 8조2326억 원이었던 것이 2년 만에 36.5% 줄어든 것이다. 초회보험료란 보험을 새로 가입한 뒤 처음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초회보험료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초회보험료 감소 폭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09년 상반기 생보사들의 초회보험료는 1조2973억 원이었다. 2007년 2조3630억 원에서 2년 새 45.1% 줄어든 셈이다.

그중에서도 저축성 보험의 초회보험료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07년 상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저축성 보험의 초회보험료가 16.8% 줄어든 데 비해, 2018년 상반기 초회보험료는 2년 전보다 62.1%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신계약 감소는 새 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 줄이기에 나선 영향이 크다"면서도 "최근 유독 저축성 보험이 급감하는 것에는 경기 악화의 영향도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신계약 건수는 작년 한 해 동안 1615만 건을 기록했다. 2년 전 1726만 건보다 6.5% 줄어든 수준이자,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02만 건과 비교해도 적다. 다만 감소 폭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18.9%였던 것과 비교하면 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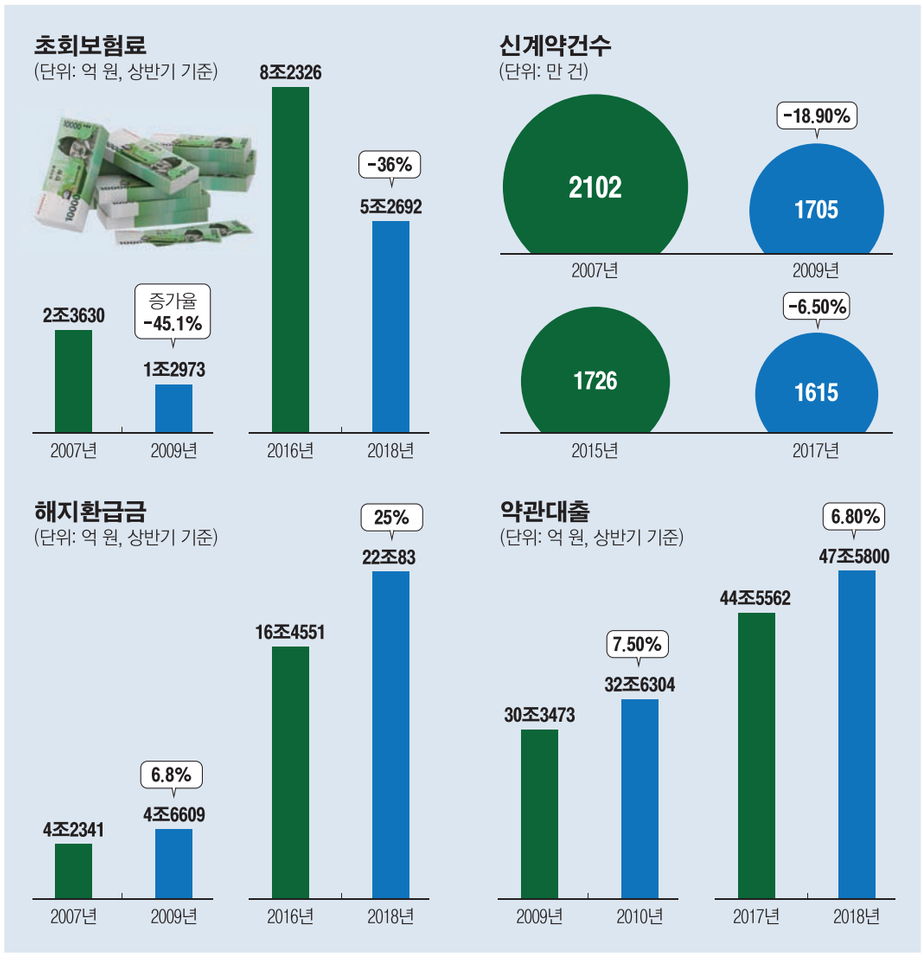
◇해약 해지환급금·약관대출도 역대 '최대' = 이처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존에 들고 있던 보험까지 깨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깨면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띤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보험을 깨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방증이다.

올 상반기 생보사들이 보험 해약에 따라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2조8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지환급금은 2015년 16조1077억 원, 2016년 16조4551억 원, 2017년 19조2221억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조6609억 원, 2010년 5조7185억 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약관대출도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낮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올 상반기 약관대출 잔액은 47조5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증가 폭 또한 2017년 3.6%, 2016년 2.3%, 2015년 0.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증가 폭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7.5%, 12.6% 불어났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둘로 쪼개진 P2P업계 법제화 논의 가시밭길

연체율 증가 등 업계 이해관계 엇갈려
렌딧 등 10곳 이달중 새 협회 출범
제도권 편입 과정 '불협화음' 우려

P2P업계 현황

	한국P2P금융협회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
주요 소속사	테라펀딩,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등 59개 사	렌딧, 팝펀딩, 8퍼센트
특징	부동산 대출 전문	개인 신용, 동산담보대출

P2P 업계가 결국 둘로 쪼개졌다. 올해 들어 '부도', '먹튀' P2P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투자 경고음'이 고조되면서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탓이다. 4월 개인신용대출 P2P업체 3곳이 기존 협회를 탈퇴하고 새 협회 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지 5개월 만이다. 새 협회 측은 최대 열 곳 이상의 업체가 합류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신용대출 P2P업체 모임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협회 설립을 완료할 전망이다. 공식 출범은 추석 연휴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준비위 측 관계자는 "이제까지 자율 규제안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 협회 합류 논의를 진행 중인 곳은 열 곳 정도다. 이들은 먼저 기존 준비위 소속 업체인 렌딧과 팝펀딩, 8퍼센트를 주축으로 협회를 설립한 다음 자율규제안 준수를 조건으로 새 협회사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자율 규제안을 지켜야만 회원사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체가 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협회가 출범하면 업계는 양분 체제 존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는 현재 59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 파이낸스 프로젝트(PF) 대출을 주력으로 한다.

문제는 P2P법제화를 앞두고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다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업계가 안정기를 거치면 통일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협회' 체제는 P2P업계의 제도권 편입 이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P2P금융업 법안에 협회를 하나로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 각 금융협회는 대부분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 등에 따른 기관 설치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리할 경우 한 곳의 협회를 관리하는 것이 편하므로 아마 협회 한 곳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中企, 조선·자동차 불황 직격탄… 대출 연체율 '급등'

한달 새 0.1P% 상승한 0.58%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제조업 경기하락으로 인한 선박·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지난달 0.48%보다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 상승률 0.08%p 보다 높은 수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81%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기업 평균치보다 빠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해 선박과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 달 만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1.78%)과 비슷한 1.79%를 기록했다. 다만 0.58% 수준에 머물렀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1.21%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7%로 직전 달에 비해 0.02% 증가했으며, 0.26%를 기록한 전년 동월에 비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44%로 0.4%를 기록한 직전 달에 비해 0.04%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 연체율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며 "앞으로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신규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이 만나

더 많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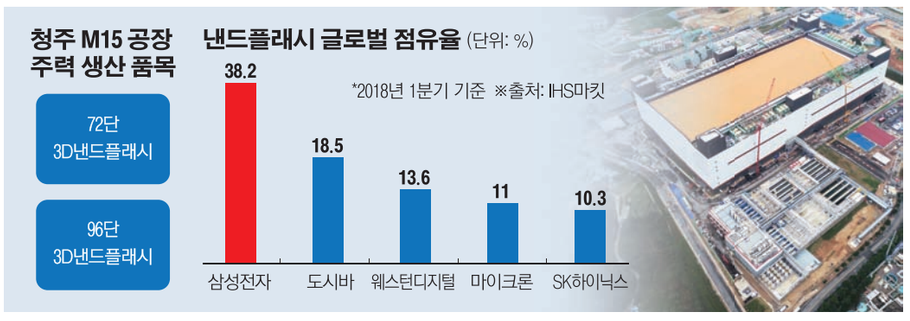
OK! SK



청주 'M15' 반도체 공장 이달 중 준공식

SK하이닉스, 3D낸드 주도권 확보 '잰걸음'

생산 예정 96단 3D 낸드 '최고 기술'
신공장 고용유발효과 35만명 추정
문대통령 참석여부 신경 곤두세워



SK하이닉스가 이달 중으로 청주 'M15'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 회사가 15조 원을 투자해 지은 청주 M15 생산라인에선 기존 SK하이닉스 최상급 모델인 72단 3D 낸드와 96단 3D 낸드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SK하이닉스 측에선 준공식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준공식 행사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청주 M15 건물 및 클린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SK 한 관계자는 "준공식 일정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최태원 회장 일정 때문에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셋째 주를 피해 이달 말께 준공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최근 경제 위기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신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신공장 준공식에서 최태원 회장을 만나 SK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정부 지원책 등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7월 15조 원을 들여 이천에 D램 생산을 위한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SK그룹이 발표한 4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가 요청한 투자·고용 확대에 부합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SK는 신공장의 고용 유발효과를 약 35만 명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춧돌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5억 달러를 기록하며 6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덕분에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를 넘어섰다. 반도체 단일 품목이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반도체가 꺾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신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96단은 현존 최고 수준의 3D 낸드 기술로 평가받는다. 데이터 저장 최소 단위인 셀(cell)을 수평(2차원)이 아닌 수직으로 쌓는 방식이다. 전원주택 단지보다 아파트 단지에 더 많은 가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96단은 64단보다 동일 면적에서 40%가량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사실상 無노조' 포스코, 강성노조 깃발 꽂나

15일 첫 번째 비공개 총회 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신청 받아

포스코 직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15일께 1박 2일 일정으로 첫 번째 비공개 총회를 가진다. 이 직원들은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지회의 공식 출범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그 시점을 대략 10월 초순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속노조 조직체계는 회사별이 아닌 지역별로 구분된다. 다만 포스코의 경우 포항·광양제철소를 구분해 지역별 지회를 세울지, 한 조직으로 출범할지 등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현재 노조가 존재한다. 노조원은 총 10명 안팎으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1997년 세워진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임금협상·복리후생·근로조건 문제 등을 협의하며 사실상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의 노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포스코는1990년 약 2만 명 규모의 대형 노조가 세워졌으나,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했다.

최근 산업계에서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고 있는 것이 포스코 직원들의 노조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무노조의 대명사로 꼽혔던 삼성의 계열사에서 최근 노조가 생겼고, SK하이닉스에서도 사무직 노조가 생기며 국내 기업의 노조 지형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정권이 '친(親)노동' 쪽인 것도 포스코 직원들의 노조 설립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최정우 신임 회장이 사회공헌 책임을 강조하며 '위드(With) 포스코' 비전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노조의 안착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현대차, 美 모빌리티 '미고' 전략적 투자

車업체로 유일 투자기업… 시너지 기대

현대차는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업체 미고(Migo)와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고는 2016년 미국 시애틀에 설립돼 지난해부터 모빌리티 다중통합(multi aggregation)이라는 신개념 서비스를 미국 최초로 선보인 업체다. 모빌리티 다중통합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미고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공유 업체들의 서비스 가격, 소요시간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제공,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사용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미고는 사용자를 연결해 준 공유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미고는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등 미주 주요 75개 도시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했다.

현대차는 미고에 대한 전략 투자를 계기로 미국의 모빌리티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현대차는 미고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진 데다 투자 기업 중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해 양사 간 협력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한다. 또 미고의 독특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현대차가 경쟁력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국내 섬유업체, 인니 진출 활발

조코위 대통령 방한…진출 확대 기대감 커져

국내 섬유업계가 180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섬유 및 의류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도도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가 주관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위해 국빈 방한하면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효성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대표들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났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 기회를 물색하기 위해서다. 인구 2억6200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전체 산업 비중 중 제조업이 41%이며, 그 중 섬유산업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산업을 향후 연간 5~6%씩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섬유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수출입은행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0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이며 제13위 교역대상국이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의복 및 섬유제품 등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6년 9월 말 누계 기준 9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포럼에서 "인도네시아도 많은 투자 협약을 할 테니 한국도 계속해서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특히 효성과 도레이첨단소재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다.

효성은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인도네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선정해 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코드와 효성티앤씨의 스판덱스 원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산업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섬유산업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현재 부직포 사업 외에 구체화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계획은 없으나 언제든 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LG전자가 18일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국내 출시에 맞춰 주요 가전제품의 한국어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객들은 음성으로 편리하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공기청정기 켜고 로봇청소기는 이제 그만~"… 한국어로 편하게

LG '구글홈' 오늘부터 예약판매

〈인공지능 스피커〉

18일 국내 출시…가전 8종과 연동

LG전자가 구글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의 국내 출시에 맞춰 주요 가전제품의 한국어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전자는 18일 '구글 홈' 국내 출시에 맞춰 구글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한국어로 주요 가전제품을 연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 홈'은 11일부터 한국에서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고객들은 '엑스붐 AI 씽큐 WK7', '엑스붐 AI 씽큐 WK9' 등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LG전자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홈'과 동일하게 한국어로 LG전자 주요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한국어로 연동되는 LG전자 가전은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에어컨, 공기청정기, 냉장고, 광파오븐, 로봇청소기 등 8종이다. LG전자는 연동되는 가전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 가전은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을 탑재한 'LG 씽큐 허브'를 비롯해 '구글 홈', '아마존 에코', '네이버 클로바' 등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와 연동된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스마트홈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외 대표 IT기업들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 △오픈 파트너십(Open Partnership) △오픈 커넥티비티(Open Connectivity) 등 3대 개방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LG전자의 앞선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략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소통·변화와 혁신으로 새 아시아나 만들겠다"

한창수 신임 사장 '튼실한 재무구조' 강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아시아나항공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위기 속 아시아나항공을 맡게 된 한창수〈사진〉 신임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한 사장은 10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기내식 공급 지연과 항공기 정비 지연 이슈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나항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금호아시아나 내에서 재무통으로 평가 받고 있는 한 사장은 특히, 회사 재무구조를 튼실하게 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들어 차입금 8656억 원을 줄였으나 여전히 차입금 규모는 3조1914억 원(지난달 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한 사장은 "30년 된 회사의 재무적 능력의 기본은 튼튼한 수익 창출 능력으로 안전운항, 안전정비,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원가 경쟁력, 치밀하게 짜인 영업력으로 뒷받침된다"며 "역량을 총집결해 수익 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재무력 회복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직원이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부정적인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절도 경영환경도 우리에게 녹록지 않기에 모든 조직원이 합심해 목표를 새로이 하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소통해야 한다"며 "저 역시 회사 내 어떠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운항, 정비, 캐빈, 공항서비스, 여객 화물영업, 관리 업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답습하고 굳어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필연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물결의 선두에 서게 되면 그야말로 마켓리더로 우뚝 설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마켓 팔로워로서 필연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유럽 상용차 판매 1위 르노 '마스터' 국내 상륙



르노삼성자동차가 르노그룹의 주력 상용차 마스터(Master·사진)를 한국에 선보인다. 1.3t 규모의 소형 밴을 시작으로 향후 라인업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적재량을 기준으로 1톤 트럭은 물론 스타렉스 밴과 쏠라티 화물밴의 틈새시장까지 노린다는 전략이다.

11일 르노삼성은 르노의 화물차 브랜드 '마스터'를 내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1980년에 처음 등장한 마스터는 출시 이후 유럽 상용차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43만4000여 대가 팔린 르노의 대표적인 상용차다.

국내에는 차 크기에 따라 마스터 S(숏보디)와 L(롱보디) 등 2가지가 나온다. 차 길이가 각각 5048㎜와 5548㎜에 달하고 적재중량 역시 1300㎏과 1350㎏으로 차이가 있다. 넓은 슬라이딩 도어와 낮은 적재함 높이(600㎜)를 지녀 화물의 상하차가 편리하다는 게 특징이다. 직렬 4기통 2.3ℓ 엔진은 트윈터보를 얹어 최고출력 145마력을 낸다.

국내 상용차 시장은 연간 약 25만 ~26만 대 규모이며, 1t 화물차로 대표되는 상용차 모델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스터는 1t 트럭은 물론 적재량을 기준으로 스타렉스 밴과 쏠라티 화물밴의 틈새시장까지 함께 노린다는 전략이다. 르노삼성에서 3년 10만㎞까지 차체 및 일반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상용차 시장에 판세 변화도 점쳐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상상으로 고르는 특별한 책… "선물 주는 이도 몰라요"

2018 광주비엔날레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 현장 가보니

이수그룹, 북 셰어링 사회공헌 기획
포장 겉면 상상 문구로 궁금증 유발
무거운 전시회 분위기 활력 불어넣어
"내년 학교·기관서도 사업 진행 계획"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2018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로비에 특별한 책방이 차려졌다.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THE BLUEBOX PROJECT)'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 책 부스는 이수그룹이 북 셰어링 형태의 CSR(사회공헌) 사업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수그룹은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의도에 맞춰 CSR를 기획했다.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이 기부한 책을 포장해 겉면에 책 제목을 상상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었다. 이 같은 책 기부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CSR의 기존 틀을 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8일 문화창조원 책 부스에서 마주친 책을 동봉한 포장지 겉면에는 '#사랑에 서툴거나 #사랑에 지쳐있는 #모든이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등 책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이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방문객들은 이 문구를 보고 포장된 책이 무엇인지 상상한다. 어떤 책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수그룹 측이 의도한 재미 요소다. 선물할 대상에 맞는 문구를 골라 전달하면 상대방이 책을 받아서야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다. 선물하는 사람도 선물받는 사람도 포장을 열 때까지 궁금증을 안고 갈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방문객들은 전시회 입구를 통과하기 전 이수그룹의 별도 부스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단순히 책을 전달하고 받는 기부 형태가 아닌 스스로 원하는 사람에게 책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호응을 이끌었다. 책마다 쓰여진 문구를 보며 어떤 책이 포장돼 있을까 상상하고, 내 지인에게 맞는 문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점이 흥미도 끌었다.

서울에서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A(28) 씨는 "부모님께 책을 전달하기 위해 전시된 책의 문구를 하나하나 유추하고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며 "앞서 많은 형태의 책 기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책 기부는 처음이라 신선했다"고 말했다.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는 임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로 운영돼 오던 이수그룹의 사내도서관 파란책방과 연계해 기획됐다. 평소 독서 애호가로 알려진 김 회장은 임직원 독서 장려 차원에서 파란책방을 직접 기획했다. 이번 전시에는 1000권이 넘는 책이 기부됐다.

이수그룹의 참신한 CSR 시도에 '광주비엔날레' 측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상상의 경계들'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와 형태가 같았고, 다소 무거운 주제의 역사·예술을 체험하는 방문객들이 책 기부에서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 주효했기 때문.

현장에서 방문객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던 이수그룹 브랜드관리팀 조요한 팀장은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매년 동일한 형태의 CSR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학교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북 트럭 형태의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이수그룹이 7일부터 개최된 '2018 광주비엔날레'에서 북 셰어링 CSR(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더 블루박스 프로젝트(THE BLUEBOX PROJECT)'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이수그룹

분위기 전환 노리는 완구업
추석 성수기 마케팅 총력전

명절 연휴 평달보다 매출 20% 증가
손오공·영실업 등 신제품 출시 '봇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완구업계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완구업계에서 추석 연휴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대목 이후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작년 이맘때 미국 토이저러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감보다 우려가 컸던 완구업계가 올해는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11일 이병우 한국완구협회회장은 "추석 시즌은 평달보다 20%가량 매출이 늘어나는 기간"이라며 "통상 8월 20일까지를 물놀이 시즌으로 보는데 물놀이 관련 완구가 빠지고 일반 완구가 대거 입고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완구 전문기업 손오공은 4일 추석 시즌을 겨냥해 여아 인형의 대표적인 브랜드 바비의 '슈퍼마켓 바비 플레이세트'와 '바비의 이층 핑크 하우스'를 출시했다. 슈퍼마켓 바비 플레이세트는 슈퍼마켓을 연상케 하는 쇼핑 카트, 계산대 등 20가지의 쇼핑 물품 등이 소품으로 구성됐다. 바비의 이층 핑크 하우스는 테라스, 부엌, 화장실, 침실로 나눠져 있고 빗, 타월, 담요 등 소품도 13가지나 된다. 손오공은 6일부터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바비 핑크버스 팝업스토어를 열어 오프라인 마케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실업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 시리즈의 신제품 '리바이브 피닉스.10.Fr'를 출시했다. 베이블레이드 초제트 시리즈는 올해 남아완구 판매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베이블레이드 초제트 블러디 롱기루스와 베이블레이드 초제트 헬셀러 맨더는 8월 기준으로 토이저러스에서 남아완구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 시리즈의 신제품 '리바이브 피닉스.10.Fr' 사진제공 영실업

CJ ENM도 추석 특수를 노리고 장난감 25종 판매에 나선다. CJ ENM은 자체 기획·제작 애니메이션인 '변신기차, 로봇트레인 S2'의 캐릭터별 변신 로봇과 레일 플레이 세트를 12일부터 판다. 글로벌 완구 기업 실버릿이 제작한 장난감으로 기차에서 로봇, 로봇에서 기차로 변신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선 올해 추석 완구업계의 주인공은 영실업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토이저러스의 8월 인기 상품 순위에서 여아 완구 1, 3, 4위를 차지한 것은 영실업의 LOL 서프라이즈 시리즈였다. LOL 서프라이즈는 알 모양의 캡슐에 인형, 옷, 신발, 액세서리 등이 랜덤으로 들어 있는 장난감이다. 여아 완구 인기 상품 2위와 5위는 영실업의 시크릿셀카폰과 영실업의 콩순이 알록달록 아이스크림이 각각 차지했다.

남아완구 역시 토이저러스의 8월 판매 기준으로 1, 2위는 베이블레이드 시리즈가 차지했고, 3위는 손오공의 헬로카봇, 4위는 영실업의 또봇V스피드가 차지했다. 한국완구협회의 이 회장은 "베이블레이드 시리즈의 인기는 중턱을 넘어가고 있고, 영실업이 또봇V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또봇V의 인기도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홈앤쇼핑, 패션 전문 프로그램 '인스타일 나우' 론칭

홈앤쇼핑이 패션 전문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홈앤쇼핑은 방송인 홍석천을 앞세운 신규 패션 전문 프로그램 '인스타일 나우(In Style Now)'를 론칭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스타일 나우'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45분부터 방송된다. 패션 부문 강화의 일환으로 론칭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패션 트렌드를 담아내는 동시에 의류, 잡화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날 방송은 론칭 특집으로 9시 35분부터 135분간 △엘렌느 니트 △샤라비아 데님팬츠 △아자로 코디세트가 방송된다.

'엘렌느'의 폴인러브 세미홀가먼트 니트 4종은 가을을 알리는 깊이 있는 컬러감과 여성스러운 곡선이 살아 있는 A라인으로 심플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샤라비아'의 라이크라 데님팬츠 2종은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라이크라 소재로 쫄깃한 핏감과 자연스러운 핸드워싱의 볼륨감 있는 디테일이 특징이다. '아자로'의 시그니처 메종 수트세트 3종은 페이크 더블 브레스트 단추 장식으로 캐주얼함을 가미해 입었을 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최두선 기자 sun@



시시각각 트렌드 변하는 '팔색조' 화장품 시장

펄펄 나는 ODM 기업들

〈제조업자 위탁개발생산〉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화장품 시장 트렌드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 화장품 제품군이 세분화되고 제품 수명은 짧아지자 기술력에 기반한 ODM(제조업자 위탁개발생산) 업체의 입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연결기준 전년 대비 47.5% 성장한 60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425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다시 높아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코스맥스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맥스의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36.5% 증가한 616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90억 원으로 22.1% 증가했다.

이처럼 ODM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한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추면서 H&B(헬스앤뷰티)스토어와 PB(자체상표) 상품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선 그때마다 니즈가 반영된 제품이 발 빠르게 나와야 하다 보니 기업들이 ODM 업체에 수주를 맡기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제약과 패션업계 등 이종 산업에서 화장품 시장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업 및 PB제품이 성장

제품군 다양화·유행 짧아지며
국내외 화장품업체 주문 쇄도
코스맥스, 상반기 매출 37%↑
한국콜마, 해외 생산공장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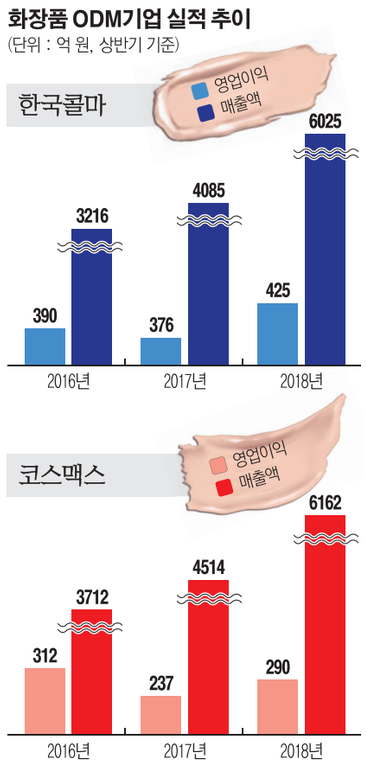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ODM의 수요도 나날이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ODM 업체가 직접 현지를 공략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ODM 업체들은 화장품 내수시장의 한계를 거론하며 현지 시장에 공장을 세우고 국내 브랜드는 물론 로레알, 시세이도,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고객사의 리스트를 늘려가고 있다. 코스맥스는 미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에 해외 법인을 설립했으며 한국콜마는 중국과 미국, 캐나다에서 해외법인을 운영 중이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코스맥스의 해외 법인들은 향후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코스맥스 차이나는 2004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한 이래 연평균 4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연간 2억 개 내외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색조 전문 공장을 상하이에 완공하고 인허가까지 획득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 역시 2016년 연간 1억 개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뉴저지의 색조 화장품 ODM 전문기업을 인수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도 나섰다.

한국 콜마 역시 중국 베이징콜마 공장의 생산능력이 1500억 원을 기록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이 800억 원, 캐나다가 500억 원 등 국내 브랜드 업체들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며 2014년 세종시에 세운 기초 공장까지 합치면 현재 연간 7500억 원 수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과 H&B스토어, 편의점 등 소비자와의 접점이 넓어지면서 ODM 업체들의 기술력과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며 "이젠 ODM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웬만한 중견 화장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선 상태"라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식중독 사태'로 신뢰도 치명상 풀무원푸드머스 실적에 쏠린 눈

식품업체 풀무원의 손자회사가 유통한 식품을 먹고 최근 식중독 의심 환자가 전국에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당 회사의 실적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피해 보상에 따른 판관비 지출은 물론 식중독 발생 원인의 책임 여하에 따라 식품 유통 전반에 대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져 향후 사업에 있어서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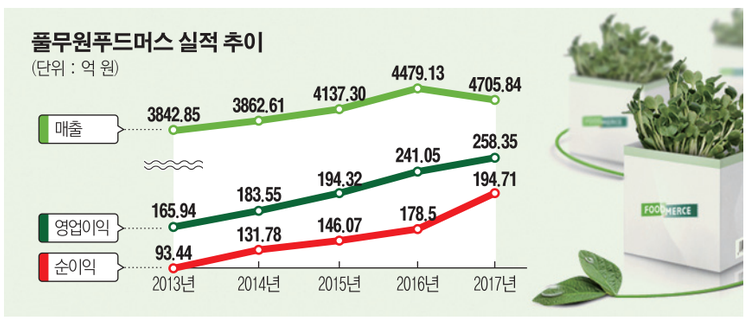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푸드머스가 유통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에 따른 식중독 의심환자 수가 10일 오후 5시 기준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전북 13곳(700명), 경남 13곳(279명),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경북 5곳(180명), 충북 4곳(122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광주 1곳(31명), 전남 1곳(15명), 제주 1곳(13명), 대전 1곳(4명)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과 식중독 신고 및 추적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교 급식소 6곳으로 총 190곳에 납품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문제의 케이크에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으며 식약처가 식중독 원인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풀무원이 입을 유·무형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풀무원은 그간 '바른먹거리'를 만든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현재 식중독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지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 케이크가 '바른선'이라는 풀무원푸드머스 식자재 브랜드로 판매돼 급식사업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영업익 258억 '알짜' 회사
올 상반기도 98억 순익 냈지만
한순간에 '바른먹거리' 무너져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풀무원식품의 자회사로 지난해 매출 4705억 원, 영업이익 258억 원을 기록할 알짜 회사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률이 5% 안팎에 이른다. 특히 풀무원식품의 해외 및 국내 계열사들이 순손실을 내며 부진한 반면 푸드머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98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손실을 줄여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진 식중독 여파는 푸드머스는 물론이고 풀무원그룹 전반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6년 서울과 경기 일대의 학교에서 일어난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 사건 당시 발생 원인이 납품업체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은 위탁 급식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를 의식한 듯 풀무원은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7일 풀무원은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이어 10일에는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 안전기준을 재점검하는 등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가보니 그랜드힐튼 서울 '옥토버페스트'



〈독일식 돼지고기 요리〉

슈바인스학세 안주 아잉거 맥주 원샷

獨민속음악 맞춰 독일 할머니도 한국 청년도 흥겨운 몸짓
올해로 12회째… 호텔에 그대로 옮겨놓은 독일 맥주축제

드넓은 비어할레(Bierhalle, 맥주홀)에 바이에른 주 전통 의상인 드린딜(Drindil)과 레더호젠(Lederhosen)을 입은 독일인들이 한데 어우러졌다. 신명 나는 독일 민속 스타일의 라이브 밴드 음악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몸을 흔드는가 하면, 젊은 한국인 청년들도 박력 있는 몸짓으로 흥을 높였다.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8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열린 옥토버페스트는 89%의 예약률을 보이며 1000여 명이 축제에 참여했다. 실제로 1810년부터 독일 뮌헨에서 개최돼온 옥토버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속 축제이자, 맥주 축제다. 이 같은 콘셉트를 표방해 그랜드 힐튼 서울은 올해로 12회째 옥토버페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옥토버페스트에는 포인트를 준 앞치마와 가슴을 동여맨 여성들의 전통 의상인 드린딜과 남성용 의상인 레더호젠에 가죽장화를 신은 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랜드힐튼 서울 수석 셰프들이 준비한 독일식 돼지고기 요리인 슈바인스학세(Schweinshaxe)와 독일식 소시지 'Wurst(부르스트)', 청어피클 등을 먹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독일 브루어리(맥주 제조공장)인 아잉거의 '아잉거 옥토버페스트 메르첸'과 '아잉거 브로바이스' 등 생맥주가 흥겨운 분위기를 돋웠다. 독일 현지 옥토버페스트 축제를 위해 생산되는 '아잉거 옥토버페스트 메르첸'은 아직 국내에 정식 수입 전으로, '그랜드힐튼 서울 옥토버페스트' 개최를 기념해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올해는 루프트한자, 아잉거 등을 비롯해 아그로수퍼, 카스, 예거마이스터, 광동제약, 쉥커코리아, 와고코리아, 이미저리코드, 닥터글로덤, 힐튼 뮌헨 파크 등의 기업이 후원에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다.

현장에서 만난 윤동식 그랜드힐튼 서울 식음료 총괄팀장은 "올해의 경우 디너 패키지를 통해 티켓을 구매한 30대 고객들이 특히 많다. 한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들도 상당수 방문해 그랜드힐튼 서울의 옥토버페스트는 한국과 독일의 가교 역할이 되고 있다"면서 "그랜드힐튼 서울의 수석 셰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놓은 독일식 수제 요리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 서울에서 옥토버페스트가 꾸준히 개최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은 총지배인 번하드 브렌더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출신인 그는 독일의 한 호텔 셰프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 축제의 맥주와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특히 독일 현지 옥토버페스트만을 위해 생산된 아잉거와 아잉거 옥토버페스트 메르첸 맥주를 국내 고객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에 추석이 있다면 독일에는 명절에 버금가는 최대 전통 축제인 옥토버페스트가 있다. 옥토버페스트를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완벽하게 재현한 곳은 그랜드힐튼 서울뿐"이라고 자랑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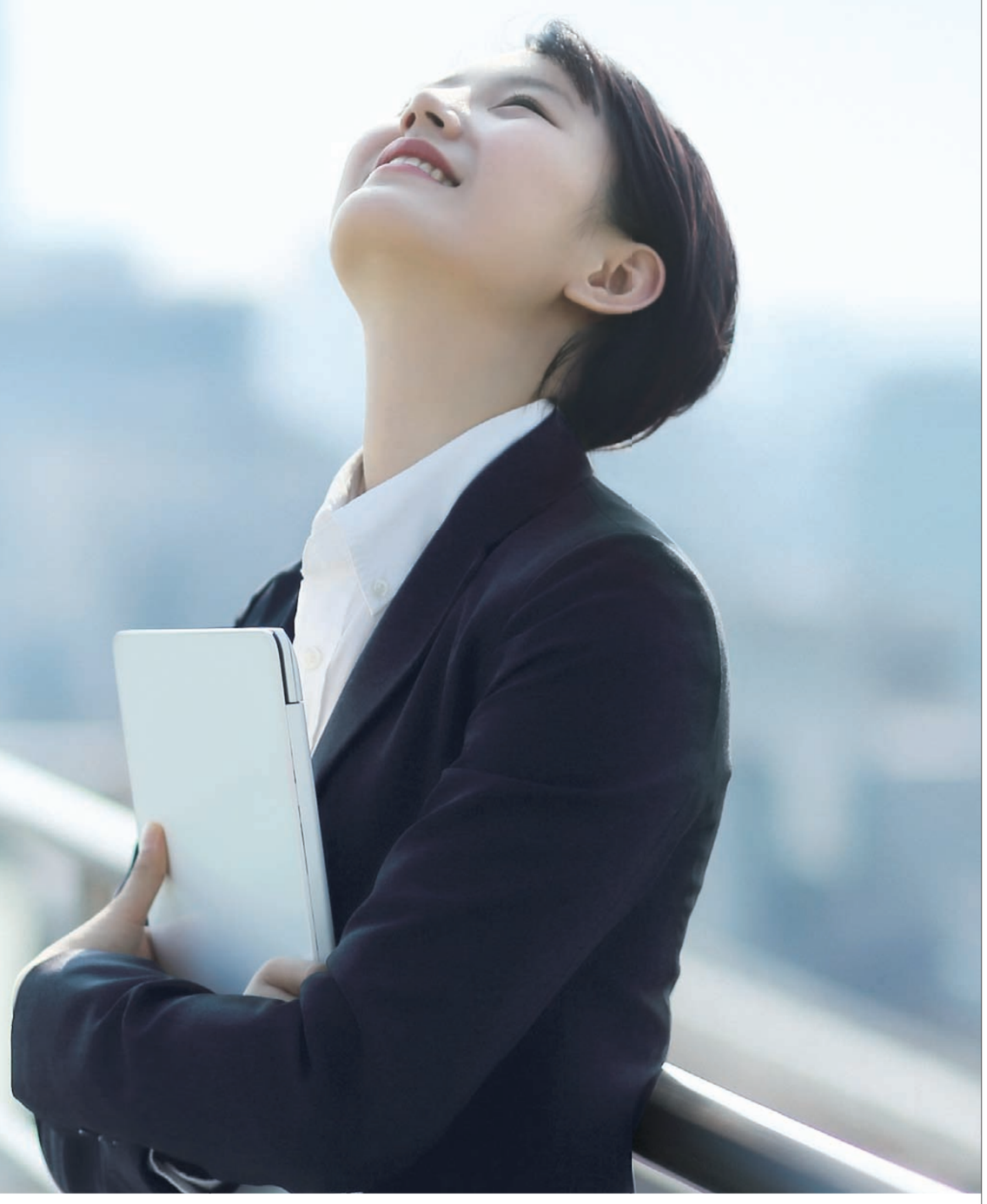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연애는 포기해야 한다
결혼은 포기해야 한다
출산은 포기해야 한다
내 집은 포기해야 한다
꿈은 포기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포기를, 포기해야 한다

청춘은 백기를 들지 않는다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모든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세~29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 1.5%p 추가 제공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추가제공

비과세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 전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인 경우

소득공제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청년우대형 청청Event 주택청약종합저축

1. '청년에게 아낌없이 드리리' 이벤트

기간 : 2018.07.31 ~ 12.31
대상 : 기간 내 전환 및 신규가입손님 전원

* **1만 하나머니** 전원 지급

2.'청년이여 OO하시게~' 경품 이벤트

기간 : 2018.07.31 ~ 09.30
대상 : 기간 내 전환 및 신규가입손님 중 추첨

1등	**청년이여 효도 하시게~**	3명 (가족여행상품권 2백만원권 지급)
2등	**청년이여 공부 하시게~**	10명 (뉴아이패드 9.7 wi-fi 128GB)
3등	**청년이여 쇼핑 하시게~**	30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 지급)

3.'청년이여 서둘러요' 사은 이벤트

기간 : 2018.08.16 ~ 11.16
대상 : 기간 내 전환 및 신규가입손님 선착순 1만명
*김하온 카카오 이모티콘 지급

* 모든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KEB하나은행이 전액 부담합니다.
* 별도의 응모 없이 계좌신규 시 자동응모되며 이벤트 간 경품의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이벤트 내 중복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상품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하나머니는 상품 판매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 건에 대해 일괄 적립되며, 적립시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 또는 하나멤버스 비회원의 경우 하나머니 적립 제외됩니다. ※경품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게시 예정이며, 발표 후 1개월 이내 경품 미수령시 당첨은 무효처리 되며,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 의거 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품은 동일 가액의 다른 경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머니는 하나멤버스로 지급되며, 카카오 이모티콘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당행의 대표번호가 스팸 등록된 휴대폰은 발송되지 않으며, 발송된 경품은 유효기간 연장, 환불,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콜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단, 각 상기이벤트별 만기일까지만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광고-3769호(2018.08.24) / CC브랜드180827-140

공시누락 따른 '증선위 징계 수위' 주목

상장사 재무 분석 골드퍼시픽

부채비율 2016년 580%대 '최악'
올 상반기 100% 초반으로 떨어져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 재무개선 중

최대주주 관계사 바이오프리벤션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내용 누락
금융위 증선위서 제재 심의 앞둬

골드퍼시픽이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한 시점에서 재무상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500%를 상회했던 부채비율은 100% 초반으로 떨어졌다.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도 호조세가 뚜렷하다. 아직 우량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2년여 동안 이어온 개선 작업은 진행형이다.

◇2016·2017년 최악의 시기를 지나다 = 골드퍼시픽은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588.57%다. 159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발행됐기 때문이다. 주가가 전환사채 전환 가액을 상회하지 않으면,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부실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자본 조달이지만 재무지표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상당 규모 물량이 현 최대주주인 밸런서즈의 보유 분이다. 2017년 감자와 유상증자가 진행되고 올해 밸런서즈 보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 진행되면서 부채비율은 상반기 말 기준 119.15%까지 낮아졌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다.

기업의 본업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활동현금흐름(기업이 한 회계기간 동안 제품 판매 등 영업을 통해 실제 벌어들인 현금)도 개선되고 있다. 골드퍼시픽은 2015·2016년 각각 -71억3700만 원, -65억5000만 원을 기록했고, 2017·2018년 상반기는 각각 -8억7900만 원, -9억1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재무구조 개선의 기회도 확대된다.

골드퍼시픽 재무상태 변화 추이
(단위: 원)

	2016년	2018년 반기
부채비율(%)	588.57%	119.15%
영업활동 현금흐름	-65.50억	-9.16억
매출액	170.17억	48.13억
영업이익	-78.37억	2.77억
영업이익률(%)	-46.06%	5.76%

※ 출처: 골드퍼시픽

다만 아직 현재 이익 수준은 부채로 인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골드퍼시픽의 2015·2016·2017·2018년 상반기 이자보상배수는 -13.69배, -16.02배, 0.79배, 0.33배이다. 이자보상배수가 1을 넘어야 이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한다. 재무 및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평가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골드퍼시픽 최대주주로 인한 금융당국 제재 가능성 = 골드퍼시픽은 전 최대주주이자 2대주주인 바이오프리벤션과 관계된 회계 감리 이슈를 안고 있다. 문제는 현 최대주주와 2대주주와의 관계다. 밸런서즈의 관계회사는 전(前) 최대주주인 바이오프리벤션과 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버리치파트너스다. 회계 감리 이슈가 재무상태를 악화시킨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과징금 등으로 인한 부담은 농후하다.

현재 상황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금감원은 6월 5일 감리 조사명령 및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골드퍼시픽은 7월 4일 △전(前) 최대주주인 바이오프리벤션과의 특수관계자 거래 10.7억 원 △특수관계사인 오션블루냉장과의 특수관계자 거래 3.9억 원 △특수관계자 문병철과의 1억 원 규모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내용 누락 △기발행 전환사채(제10회 차부터 제14회 차) 51억 원의 유동성 분류 오류로 2016년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감사인 지정, 과징금 등 다양하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의결 안건으로 올라와야 한다. 회사 안팎에선 이르면 9월 쯤 제재 심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美 관세보복은 11월 이후… 환율압박 통해 中제재 전망"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3차 관세 부과안 중간선거 이후 전망
美무역적자, 强달러 비례…환율압박 통해 적자 부담 줄일 듯

무역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 제재 수단으로 관세 부과보다 환율로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세 번째로 2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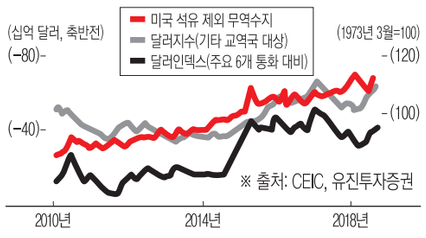
증권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이 고조되던 6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대로 하락했다"며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을 반증하는 것"으로 짚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감안하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하다"며 "만약 미국이 3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시점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관세가 아닌 환율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허재환 연구원은 "지지율에 민감한 미국은 환율 압박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꿔 달러 강세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러화 흐름과 미국 무역수지와의 관계
※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만으로는 부족, 환율 압박 가능성



※ 출처: CEIC, 유진투자증권

허 연구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석유를 제외한 무역적자는 달러화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며 "달러가 강세일 때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박은 이어갈 전망"으로 내다봤다.

김두언 연구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외환시장을 대비해야 한다"며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미국 달러화의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1년 점도표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김정주, '절친' 회사 아이디스홀딩스 손 털었다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 보유株 전량 매도
재무적 투자자 역할 마무리 126억 회수

넥슨의 지주회사 엔엑스씨(NXC)가 아이디스홀딩스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며 손을 털었다. 5월 일부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한 데 이어 남은 지분까지 전부 장내 매도하면서 8년 넘게 이어진 투자 관계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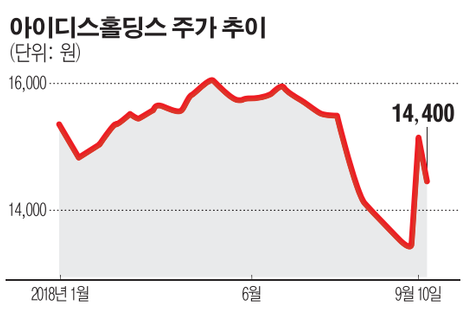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엔엑스씨는 보유 중인 아이디스홀딩스 주식 90만1081주(8.71%)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는 7월 23일부터 3일까지 총 27거래일 동안 이뤄졌으며, 매도가는 1만3000~1만4000원에서 형성됐다. 1만4000원 기준 약 126억 원의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엔엑스씨는 5월 한 차례 블록딜 방식으로 일부 지분을 정리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11일 "엔엑스씨는 대표 간 우호 관계로 아이디스홀딩스의 인적분할 전부터 투자한 상태였다"며 "투자 기간이 오래돼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지분 매각에 관해 사전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주 넥슨 회장은 김영달 아이디스홀딩스 대표이사와 1968년생 동갑내기이자 카이스트 동기로 알려졌다. 절친한 사이로 김정주 회장이 김영달 대표의 회사에 단순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스홀딩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엔엑스씨의 두 달간 이어진 장내 매도로 아이디스홀딩스 주가는 내림세를 지속했다.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21일 장중 1만32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엔엑스씨의 장내 매도 마지막 날인 4일 종가 기준 8.55% 급등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 "엔엑스씨가 장내 매도한 마지막 거래일인 4일부터 시장의 우려가 해소돼 기관매수가 대거 유입,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거 엔엑스씨는 지속해서 아이디스홀딩스 지분을 늘리면서 인수설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적 협업보다는 2대 주주(23.94%)로 자리 잡으며,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한 모양새다.

이정희 기자 ijh@

공정위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상승 전환한 철강株

철강가격 담합 관련 과징금 조치에도
현대제철 3.13%·동국제강 2.03%↑

철강가격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받은 일부 철강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해묵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과징금 규모가 우려대비 적어 주가에 되레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대제철은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하루만에 1900원(3.50%) 오른 5만6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날 한국철강(1.89%), 대한제강(1.71%), 동국제강(1.60%)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는 전날 코스피200 철강업종의 수익률(0.54%)을 아웃퍼폼하는 수준이다. 이들 상장사 4곳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철강가격 담합 판정을 받았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 수준보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징금은 총 1194억 원으로, 기업별로는 현대제철이 4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02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YK스틸 113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순이다. 당초 업계는 담합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적게는 1조 원에서부터 최대 3조 원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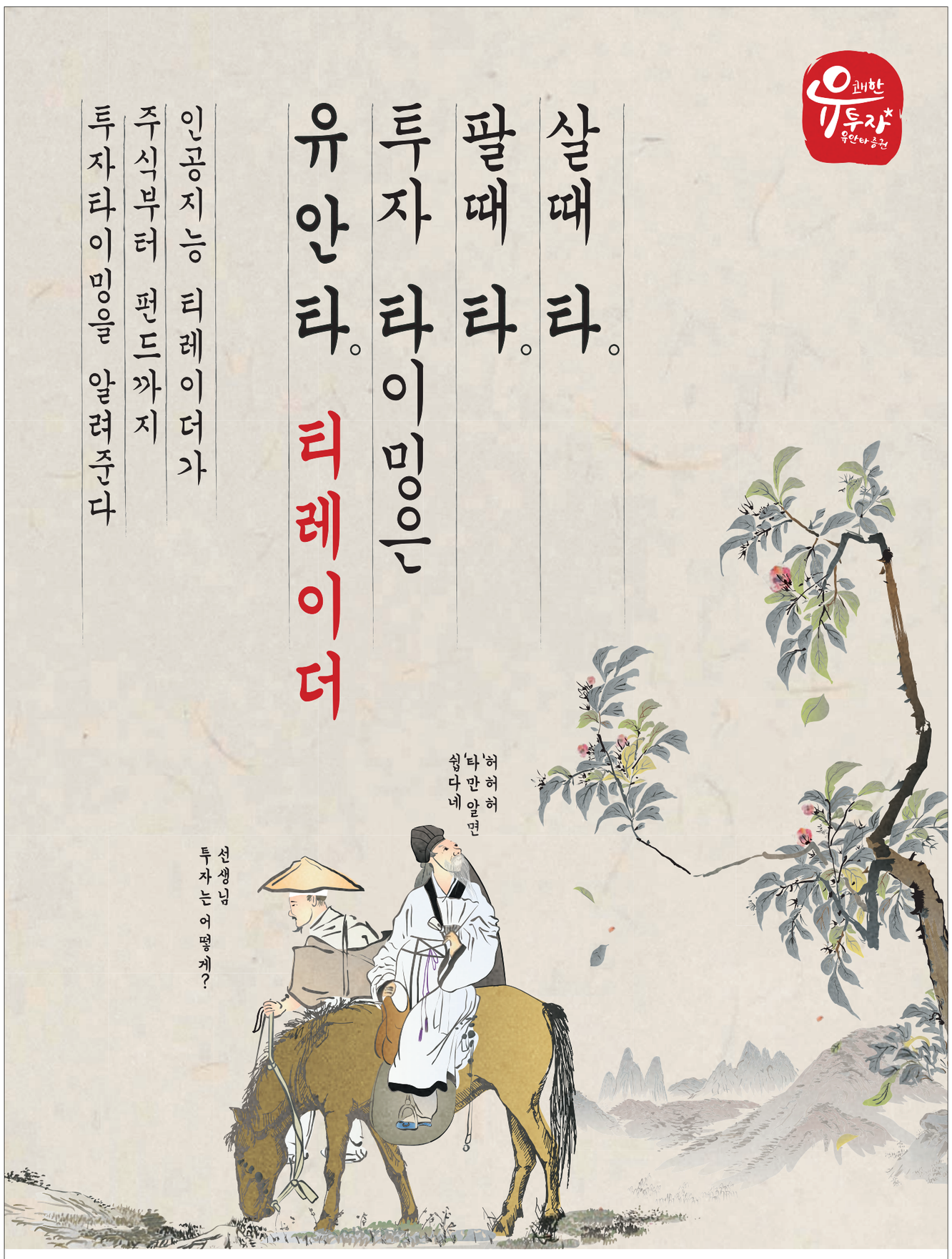
개별 기업별로 봐도 확정된 과징금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과징금 규모는 각각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2.9%, 17.5% 수준이다.

건설사와 철강사 간 철근가격 협상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지 않은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었다. 분기 가격 협상으로 일종의 가격 가이드 라인이 생겼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변동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철강시장에서도 호재가 맞물렸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철강제품 쿼터제 면제 명령으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날 중국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펀드 조성 소식까지 전해지며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이원주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의심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게 2016년 12월로 이후 21개월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2011~2016년까지 철근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당초 우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 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1051호(2018.03.06~2019.03.05)

기업 구조조정 전문 '나우아이비캐피탈' 내달 코스닥 상장

"2020년 운용자산 8000억으로 키운다"

사모펀드 운용·M&A 자문
매년 30% 배당성향 유지



"2020년 운용자산(AUM)이 8000억 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승원〈사진〉 나우아이비캐피탈 대표는 코스닥 상장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자산 규모 확대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3년 설립된 나우아이비캐피탈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출발해 신기술사업 금융업, 사모펀드 운용(PEF), 인수합병(M&A) 자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투자 회사이다. 초기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창업투자 회사들과 다르게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 혹은 쇠퇴기에 진입한 기업들의 구조혁신과 2차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 라이프사이클 전 영역에 걸쳐 투자하고 있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경험과 M&A 자문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목적이 강한 펀드들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M&A 지원 △성숙 산업에 혁신 도모 △구조조정 기업의 재기 지원 등 정책 목적이 강하고 투자 난이도가 높은 펀드들을 운용해왔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민간기업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의 시너지를 창출해 민간 앵커 출자자(LP)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농식품 중소기업에 푸드테크, 헬스케어, 농식품 바이오 등 관련 산업의 혁신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지원해 출자기업과 피투자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었고, 성공적인 운용 레퍼런스로 관련 펀드를 지속적으로 결성하고 있다.

펀드들의 성공과 출자 기업과 피투자 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기반으로 나우아이비캐피탈은 2014년 2260억 원의 운용자산 규모가 2017년 438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이번 공모를 통해 수익 성장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일반 창업투자사와 달리 운용사(GP) 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나오는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이외에 지분법이익이 영업수익(매출액)의 주요 항목이다. 이번 공모에서 유입되는 자금도 자기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지분법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승원 대표는 "2010년 일본 M&A 펀드를 시작으로 농식품, 구조혁신 펀드 등 투자 난이도가 높은 정책 목적성 펀드들과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출자한 그로쓰캐피탈 펀드 등을 다수 운용하며 우리만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축적했다"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운용 규모의 성장과 수익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의 공모예정가는 9500~1만1000원(액면가 5000원), 공모주식수는 250만 주, 공모예정 금액은 238억~275억 원이다. 9월 10~11일 수요예측, 9월 17~18일 청약을 거쳐 10월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주관사는 신영증권이 맡았다.

김우람 기자 hura@

나노스, 대주주 대상 5대 1 차등 감자

"관리종목 탈피 기대…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 지분율 98%→80%대
지분가치 4조 가량 줄어들어
소액주주 보유 주식은 그대로

나노스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자(자본감소)를 실시한다. 주주가치 제고와 관리종목 탈피를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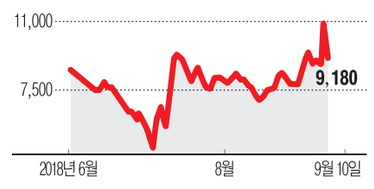
나노스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를 대상으로 5: 1 비율로 차등 감자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이번 감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기존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수는 기존 대비 5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 반면 소액주주의 보유 주식수는 감자 전과 같다. 따라서 소액주주 지분율이 2.5%에서 11.2%로 크게 증가하면서, 98%에 달하던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후반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앞서 4월 이 회사는 소액주주의 소유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해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나노스는 이번 감자를 통해 관리종목 탈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거래소 규정상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통 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보유 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분산 기준 미달에 예외가 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나노스 주가 추이
(단위: 원)



회사 관계자는 "나노스와 같이 경영난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대주주 대상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대주주가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 4조 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주주가치 제고 및 이른 시일 안에 관리종목을 탈피를 위해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해 대주주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자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율 증가와 관리종목 탈피뿐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 됐던 유통 주식수 제한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고 감자차익으로 누적 결손금을 상계해 재무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양선길 나노스 대표는 "이번 감자는 회사 자체적인 재무구조뿐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주식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감자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지니야~ 'SERICEO' 콘텐츠 보여줘"

멀티캠퍼스, KT에 지식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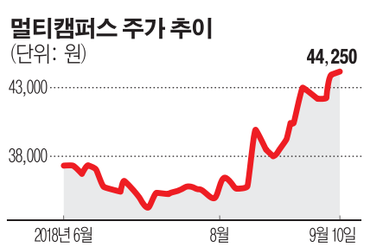
멀티캠퍼스는 세리시이오(SERICEO) 지식 영상 콘텐츠를 KT 인공지능(AI) 기가지니(GiGA Genie)를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KT 기가지니(GiGA Genie) 이용자는 '지니야~ 세리씨이오 콘텐츠 보여줘'라고 말하면 기가지니(GiGA Genie) AI 스피커는 물론 연동된 TV 화면에서도 SERICEO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다.

SERICEO는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 등 1만5000여 명의 유료 회원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 지식서비스'로 각 분야 비즈니스 리더의 강연과 직장인에게 필요한 최신 트렌드 등 7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 1만5000여 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ERICEO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동향을 다룬 '4차 산업혁명 미래전략 보고서'와 잭 웰치(Jack Welch) GE 전 회장 , 세스 고딘(Seth Godin),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등 세계적인 석학이 출연하는 'CEO가 묻고 구루가 답하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유연호 멀티캠퍼스 대표는 "SERICEO 연구진과 강사진이 엄선한 명품 지식 콘텐츠를 AI 스피커, TV, 모바일 등 다양한 KT 기가지니(GiGA Genie) 채널을 통해 많은 고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멀티캠퍼스 주가 추이
(단위: 원)



.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HR 컨설팅,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교육 플랫폼 구축 등 기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HRD BPO, 금융교육 BPO, 러닝플랫폼, 외국어평가, 외국어교육 BPO, 지식 콘텐츠 등이다.

자회사 LTI는 미국 내 대학, 기업, 정부 시장에서 외국어평가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본, 중국, 베트남 시장 내 국제공인외국어회화시험(OPIc)을 개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LIG넥스원, 방위사업청과 4390억 계약

'철매-II 성능개량' 본격 양산

LIG넥스원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인 '철매-II 성능개량'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과 '철매-II 성능개량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4390억 원으로 2023년까지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철매-II 성능개량'은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로 사드(THAAD),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패트리엇 등과 4중 방어망을 이루는 KA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계적으로도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극소수로 '철매-II 성능개량'의 양산 및 전력화가 진행되면 수도권 및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 국방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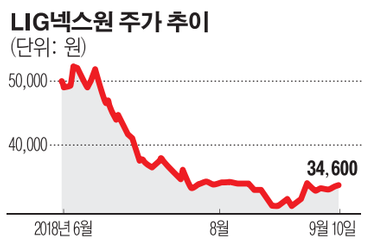
향후 장거리 요격체계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KAMD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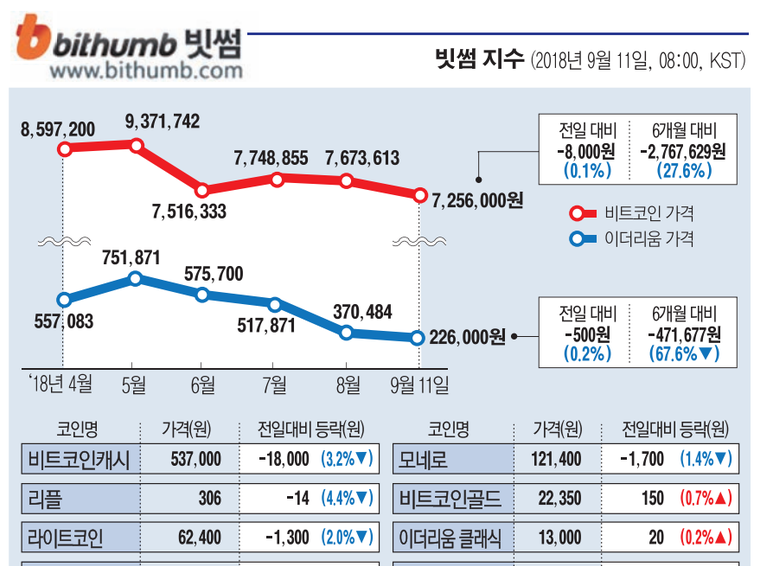
'철매-II 성능개량'은 탁월한 작전 성능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향후 대규모 수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현대·기아차 등 다수의 체계업체와 중견·중소업체들이 양산에 참여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도무기 관련 기술 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양산이 시작된 철매-II 성능 개량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LIG넥스원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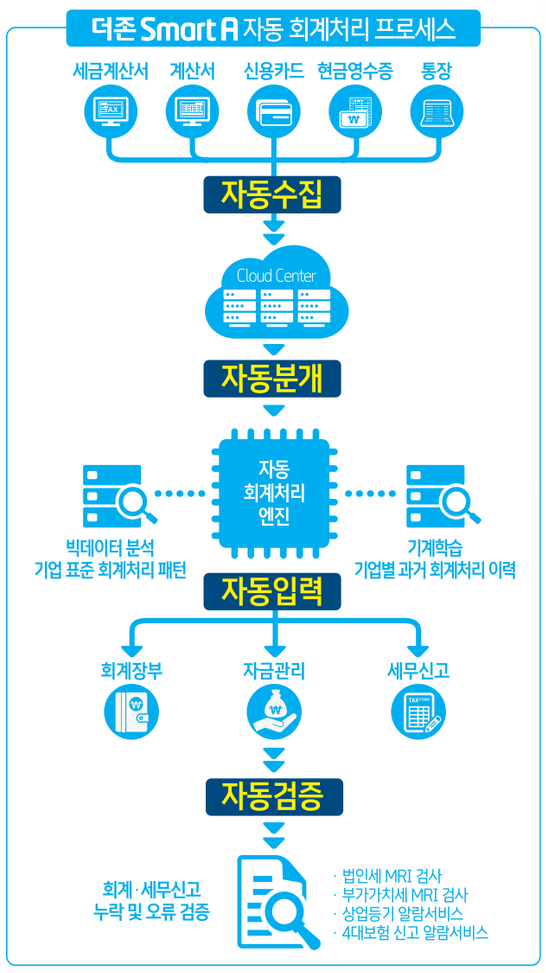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무관리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건설업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려야”

최은정 建産硏 부연구위원

“옥외현장 날씨·계절 영향 많이 받아
현행 노사합의 2주·서면합의 3개월
각각 4주·1년 단위로 연장해야”
국회 근로시간 단축 토론회서 주장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건설산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신보라 의원, 추경호 의원(앞줄 오른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계에 적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를 현행 2주에서 4주로,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옥외 사업으로 날씨·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 만큼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1개월, 1년(노사합의)으로, 미국은 6개월 또는 1년(노사 합의)으로 정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단위에서 4주 단위(단, 해외공사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8주 단위)로,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도 현행 3개월 단위에서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부연구위원이 37개 현장(공공 29개, 민간 8개)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임금 감소 비율은 공공공사 관리직은 14.5%, 민간공사는 7.4%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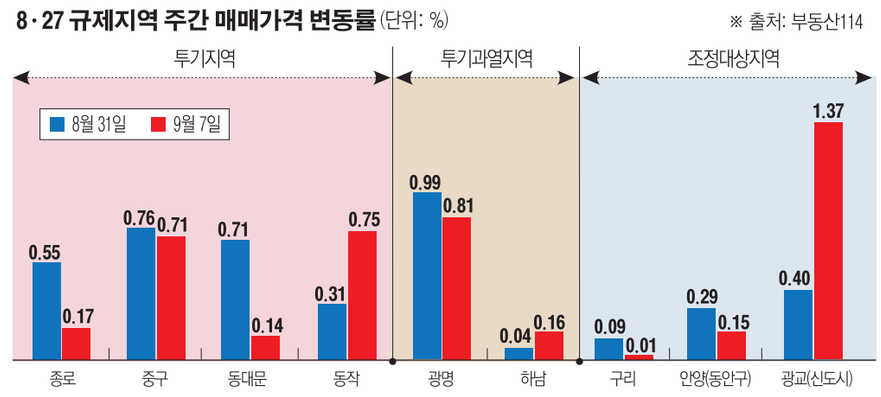
하도급의 경우 순서대로 17.5%, 7.8%로 감소폭이 더 컸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12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세부 지침 부재 △품질 저하 및 안전관리 공백 우려 △근로자 관리의 문제 발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의 부족 △해외 공사 진행의 어려움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약업무 처리 지침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 현장별 적용 △건설업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관 협력 필요 등을 꼽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강남 인근 집값까지 불 지른 ‘8·27 대책’

안정세 보이던 광교신도시 1.37%
9월 첫 주 수도권서 가장 많이 올라
과천 0.88% 광명 0.81% 의왕 0.52%
강남 접근성 좋은 지역 높은 상승률
신규 투기지역 4곳 중 3곳은 둔화

정부의 8·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과 경기권 일부 지역에서 급등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27 대책 이후 발표된 첫 주간 동향인 9월 첫째 주 수도권 전체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1주 만에 1.37%의 상승을 기록한 광교신도시였다. 지난달 광교신도시의 상승률은 8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0.00~0.28%를 기록할 만큼 비교적 저조했다. 이후 8·27 대책 발표 직후였던 8월 31일의 집계에서는 0.4%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다 9월 첫 주엔 전주에 비해 3배가 넘는 상승폭이 관측된 것이다.

이 밖에도 9월 첫째 주 수도권에서는 △과천 0.88% △광명 0.81% △의왕 0.52% △분당 0.47% △위례 0.46% 등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높아진 오름세가 관측됐다. 특히 ‘준강남’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강남과 인접한 과천과 분당,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와 행정구역을 공유하는 위례신도시 등 주로 강남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높은 상승세가 많이 나타났다.

8월 초만 하더라도 경인권에서 가장 높이 오른 광명이 한 주간 0.34%, 신도시 중 가장 많이 오른 광교가 0.07%가 오를 만큼 잠잠한 분위기였음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의 규제를 받은 지역의 수요가 인근으로까지 퍼져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8·27 대책에서 직접적인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중구·동대문구는 이달 첫째 주에 전주 대비 0.05~0.57%p의 상승폭이 감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강남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신분당선 라인 개통이라는 강남 접근성 개선의 호재를 맞은 분당과 광교 등이 최근 많이 올랐다”며 “수도권에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원래부터 내재돼 있던 상승 여력에 더해 일부 강남 쪽에서 내려오는 투자 수요가 상승세를 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非규제지역 풍선효과 얼마나

지난해 8·2, 9·5대책 후 청약 수요 몰린 학습효과, 이번에는?

8·27 부동산 대책을 피해간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거세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규제로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지난 8·2 대책 당시 지정된 11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를 포함해 총 15개 구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광명시, 하남시 이외에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된다.

높은 가격상승률은 물론 청약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청약 규제 강화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높은 반사이익의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8·2 대책 및 9·5 후속대책 이후 규제 대상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봤을 때, 학습효과에 따라 이번에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열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8·2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에 분양한 단지들의 청약 성적은 좋았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시 인근 의왕시 오전동에 분양한 ‘의왕 더샵캐슬’은 199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1504명이 몰리며 57.8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전국 34개 지역 679호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34개 지역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자격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 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상표권 논란’ 본죽 대표 부부 징역 5년 구형

〈김철호 대표·최복이 前대표〉

검찰 “브랜드 상표 개발 관여하지 않은 최복이 前대표 개인명의 상표권 등록, 가맹점주와 소비자 이익 침해”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사용료를 받은 의혹을 받는 본죽 창업주 김철호(55) 본아이에프 대표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 대표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아내인 최복이(54) 전 대표가 브랜드 상표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대표 측은 최 전 대표가 메뉴를 개발해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상표 고안은 메뉴 개발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대표가 본비빔밥 등의 상표를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대표는 아내가 상표 개발에 기여하지 않았으나 명의 이전 요청을 해 명의를 등록해줬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했다”며 “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 대표는 상표에 대한 권리가 아내에게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본죽 명칭도 아내가 지었고 ‘본’에 집착이 강해 본시리즈를 10개 만들고 싶어 했다”며 “후속 브랜드도 ‘본’이 들어간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흡한 부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 끼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본아이에프 김 대표와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 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전 대표는 2014년 11월 회사를 퇴직하며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대표와 최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윤한슬 기자 charmy@

“상조회사 망해도 他업체가 서비스 제공해야”

권익위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정위에 권고

국내에 상조회사 150여 개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상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몰라 피해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154개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은행)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 상조회사 폐업 시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잘 몰라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이 정한 상조회사에서만 대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전기관 간의 선택 구분을 두지 말라고 권고했다.

일례로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속된 19개 상조회사 중 한 곳이 망하면 5곳 중에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정한 8곳과 은행이 정한 6곳 중에서도 대안서비스를 제공할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라는 뜻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오리온 그룹〉

“별장 아니고 연수원” 警 출석 담철곤 회장 항변

회삿돈 200억 개인 유용 혐의 경찰, 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회삿돈을 끌어다 개인 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한 담 회장은 ‘회삿돈 200억 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해당 건물 용도를 묻자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혔고,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설계 당시 정확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설계와 건축에 담 회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담 회장이 공사비를 회삿돈으로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하지만, 오리온은 해당 건물이 경영진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와 건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는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우유 판매장려금 착복 등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1팩당 100~200원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장려금은 판매촉진과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커피 전문점들은 이를 본사 사업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대표는 식재료 유통과정에 자신의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거나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0년대 초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설립된 탐앤탐스는 국내외 400여 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장효진 기자 js62@

공항 입국장 검역 강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 검역소에서 입국 승객들이 열화상카메라를 지나며 발열 확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대법 “해외 도박장 개설 한국인 처벌해야”

한국인이 도박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도박장을 개설했더라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김 씨는 2010~2015년 베트남의 한 호텔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한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자신이 인수한 A 식기 제조업체의 전 경영진과 주거래은행인 B저축은행 대표를 협박해 10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씨의 도박장소 개설, 부당대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도박장소 개설죄를 범했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김 씨 주장대로 도박장 개설이 베트남국 법령에서 허용돼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장효진 기자 js62@



“승객 안전에 최우선 투자”… 항공사 ‘사고제로’ 총력전

일부 항공사 정비 결함으로 결항 건수 늘자 ‘체감안전도’ 급감
“구조적 문제 해결” 대한항공, 독립부서 만들며 품질관리 온 힘
국토부 ‘안전투자 공시제’ 시범 도입… ‘적정운항 기준’도 마련


제주항공 종합통제센터.

“우리나라 항공사들만 유독 문제가 많은 건가요?”

최근 정비 미흡이나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지연·결항되는 건수가 매년 늘면서 승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항공사의 경영상 문제가 정비 결함으로 이어지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지연사태가 발발하자 국적 항공사에 대한 승객들의 체감안전도는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다.

항공사들은 다소 억울한 상황이다. 매년 수백억 원, 많게는 천억 원대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하며 안전운항에 힘쏟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정비인력이나 시간 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도 항공사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항공사들 ‘안전강화’에 적극…“고객 신뢰가 중요”=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매년 안전 부문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안전 및 보안, 운항, 정비, 객실, 종합통제,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전 부문에 걸쳐 직원들의 교육 훈련 및 최신 장비 구입 등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안전과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 세미나 참석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항공은 운항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 부서를 만들어, 모든 항공기 운항에 일정한 기준의 숙련도 단계를 적용해 훈련과 비행 기준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모든 훈련 과정을 정확한 기준과 규정에 의거해 측정,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기존에 사용하던 자체적 안전관리 IT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인 세이프넷(SafeNet)을 개발해 2009년부터 현업에 적용하고 있다.

기체 결함 등으로 여객기 지연 출발이 빈번했던 아시아나항공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의 안전 품질 전문 컨설팅 업체인 프리즘(PRISM:Professional Resources In System Management)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프리즘사에서는 이달 중 지난 한 달간 정비 조직, 인력 운영, 매뉴얼 체계 및 정비 수리 절차 등에 대해 검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급성장세를 보인 LCC(저비용 항공사)들은 성장 속도에 걸맞은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이 항공기 운항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안전운항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힌 것이다.

제주항공은 기존 운항통제 기능에 정비통제와 운항 코디네이터 기능을 더해 모든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종합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여러 본부에서 맡고 있던 안전운항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아 평상시에는 효율적으로 안전운항을 관리하고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운항통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력 또한 기존 70여 명에서 90여 명으로 늘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의를 꾸준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 항공사 안전 규제 ‘고삐’ 죈다= 정부도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기 운용 상황과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이 우선 대상이다.

공시 목록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운용(항공기·엔진·부품·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 간 자율경쟁을 촉발해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달 중 적정운항 기준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적정운항 기준은 항공사가 보유 항공기로 운항스케줄을 짤 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수리 미비에 의한 항공기 결항이나 승객들의 항공안전을 고려한 적정기준 △착륙 항공기의 다음 항로를 위한 이륙 전 최소 시간 기준 등이 포함된다.이와 국토부는 항공사별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가 항공기 결함 등을 대비하지 않은 무리한 스케줄로 소비자 피해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적정기준 마련을 통해 항공안전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차세대 항공기로 ‘안전·수익’ 양날개 편다

대형 항공사부터 LCC까지 “고효율·친환경”… 新기종 세대교체 경쟁

항공사들이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차세대 항공기 도입으로 운영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 노선 운영도 가능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령 0년’의 차세대 항공기 도입으로 안전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형 항공사 항공기 평균 기령은 9.9년으로 나타났다. LCC(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10.16년으로 대형 항공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항공사 항공기 나이가 젊어진 것은 최근 항공사들이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효율·친환경성을 갖춘 항공기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항공기 평균 기령을 낮춰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이고 정비 비용까지 줄이겠다는 복안에서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비롯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LCC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항공기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사의 CS300 차세대 여객기를 기존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 노선으로 확대 투입했다.

CS300은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아시아 항공사 중 최초로 도입한 최신 항공기로 동급 항공기 대비 연료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이 높다. CS300에 장착된 엔진은 내부에 설치된 감속기어를 통해 최적의 속도와 효율을 발휘하며 알루미늄합금과 탄소복합소재 사용을 통한 항공기 경량화와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기존 동급 항공기 대비 연료 효율은 최대 20% 높이고, 소음은 최대 20db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7대의 CS300 여객기를 국내 노선에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3대를 추가 도입해 중·단거리 노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 차세대 주력 기종인 A350-1000을 들여왔다. A350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운용 중인 항공기 중 최신예 기종으로 △동급 중대형 항공기 대비 확대된 객실 공간 △뛰어난 연료 효율성 △소음과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성 △기내 습도 및 조명 개선으로 쾌적한 기내 환경 제공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4월 A350-900 1호기를 도입한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까지 총 30대의 A350 기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A350-1000 항공기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총 1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LCC도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보잉사의 신기종 항공기인 보잉 737 MAX 8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5월 항공기 리스사와 보잉 737 MAX 8 도입 관련 최종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12월까지 2대를 도입하게 된다.

보잉 737 MAX 8은 항속거리가 길고, 연료 효율이 기존 보잉 737-800기종보다 14%가량 향상됐다. 이에 좌석 수는 기존 NG 800기종과 동일한 189석이지만 운항거리가 6570km로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 주요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스타항공은 보잉 737 MAX 8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보잉 737-700기종을 반납하면서 기종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CS30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

티웨이항공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보잉사의 신기종 항공기인 보잉 737 MAX 8을 도입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2021년까지 보잉 737 MAX 8 기종 총 10대 이상을 도입해 차세대 주력기로 삼을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기령이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정비가 잘 이뤄지냐가 더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오래된 항공기의 경우 이착륙시 받게 되는 하중으로 동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엔진 역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HAURI

내연기관車 무덤 된 중국… 토종 전기차는 '씽씽'

中 '친환경차' 중심 시장 재편

추첨·경매 방식으로 신규 등록
내연기관차 번호판 발급량 제한
新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급증
전체 글로벌 판매량의 절반 차지
中기업, 정부 전폭 지원에 성장세
韓기업과의 기술격차도 크게 줄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이 친환경 저공해차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가 빠르게 퇴출되면서 친환경 저공해를 앞세운 신에너지 자동차가 확산되고 있는 것.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 토종 자동차 기업이 하나둘 시장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모자란 기술력을 만회하기 위해 거대 자본을 거침없이 투자하고, 외국계 기술 기업의 인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획일화된 규제가 일반화된 덕에 급변하는 자동차 정책에 중국 자동차 기업들도 속속 친환경차로 지향점을 옮기고 있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하늘의 별 따기 = 내연기관에 대한 공급 제한 방법은 간단하다. 엔진이 달린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되,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는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지역별로 신차 등록을 추첨하거나 번호판을 경매로 구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자동차의 수요는 종전 자동차의 대체 수요가 대부분이다. 추첨이나 경매를 통해 신규 번호판 획득에 실패했다면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일 완성차업계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판매되는 차들이 중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번호판을 추첨을 통해 얻거나 경매로 구입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차값에 맞먹는 경우까지 생겼다.

반면 친환경 저공해 에너지차인 전기차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다. 차 가격이 비싸지만 경매나 추첨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쪽이 유리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50%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시장에 판매된 전기차는 지난해 동기 대비 69% 증가한 75만8375대다. 7월 판매량이 15만대에 달하고 있어 올해 전 세계 전기차의 연간 수요는 190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 신차 판매의 40%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약 35만9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의 50%에 육박하는 규모다.

자연스레 2016년 45%였던 이 비율이 지난해 47%로 성장했고 올 들어 2분기까지 50%를 기록중이다. 증가율 역시 글로벌 평균을 앞서고 있다.

중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한국과 일본, 기타 아시아 다른 국가를 모두 합친 것보다 3배나 많다. 주요 자동차 선진국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은 △정부 보조금 △전통 자동차에 대한 구매 제한 △충전 시설 구축 가속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엔진 자동차에 대한 구매 제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지난 2년간 구매 제한 정책 시행 도시의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 합계가 중국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자동차 산업 전체를 빠르게 뒤바꾸고 있는 셈이다.

추첨 또는 경매를 통해 어렵게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신에너지 승용차는 번호판 발급량을 제한하지 않거나 추첨 비율이 높은 상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나 5부제에 친환경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는 등 정책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우세하다. 한마디로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논리가 자동차 시장 재편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왔던 기존 자동차 메이커 이외에 신흥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라는 단순한 구조를 앞세워 속속 자동차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

중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에 대해 외국계 자본 규제를 최근에야 완화한 상태다. 웨이라이, 샤오펑, 웨이마 등이 대표 기업이다. 결국 지난해 기준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5대 브랜드가 전체 판매량의 절반(51.4%)을 차지했다. 지리자동차와 BYD, 베이치, 창안-장링, 중타이 등이다.

중국 현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눌렀던 전자기업 샤오미 역시 전기차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전기차 메이커들은 차를 많이 팔다 보니 기술력도 점진적으로 쌓아가고 있다. 토종 중국 전기차와 일본과 한국 전기차의 기술 수준 역시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태. 전기차의 기술력이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에 모아지는 만큼 중국 토종 기업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이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당분간 시장 확대의 주도권 역시 중국 기업이 쥐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현지 친환경차 시장 진출은 더디기만 하다.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를 만들 때 파나소닉과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 토종 업체는 정부 보조금 대상이 된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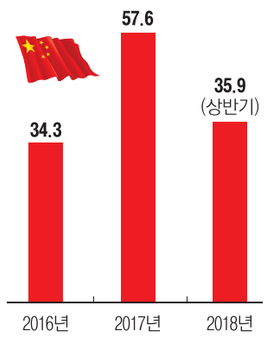
사회주의 체제가 여전한 중국은 시장경제 논리를 추구하기보다 정부 규제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맞고 있다.

문제는 기술력과 시장 변화, 트렌드, 사회적 요구가 맞물려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정부 규제를 통해 시장이 변하는 만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 기술이 없음에도 신규 업체로 등록한 토종 기업들이 다른 회사의 완성차를 가져와 개조 수준의 변화를 거쳐 신차를 내놓기도 한다.

중국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조금씩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전기차 회사의 난립도 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
(단위: 만 대) ※출처: KOTRA



중국 주요 도시 내연기관 승용차 구매 제한

도시	시행연도	번호판 취득방식	주요 내용
상하이	1994년	경매	신규 자동차 번호판 경매 매월 발급 수량 1만 개로 제한
베이징	2011년	추첨	신규 등록 5년간 60만 대로 제한 약 30%인 17만 대는 신에너지 차에 우선 배정
광저우	2012년	추첨 및 경매	신규 자동차 12만 대로 제한 신에너지(1.2만 대)와 일반차(6만 대) 추첨 4만8000대는 경매 방식
톈진	2013년	추첨 및 경매	2014년부터 신규 등록 10만 대로 제한 6만 대(신에너지 1만 대 포함)는 추첨 4만 대는 경매
항저우	2014년	추첨 및 경매	매월 1만 개로 신규 번호판 발급 제한

LG화학 대신 중국산 배터리로 교체 장착

현대車 '위에동 EV' 中 공략

〈아반떼 HD〉

택시 등 법인차 중심 본격 마케팅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 가운데 일찌감치 전기차 기술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독 중국 시장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에 따라 시장 판세가 좌우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도 답보상태에 빠진 것. 삼성SDI와 LG화학은 중국 정부의 5차 배터리 인증에서도 탈락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할 전기차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를 모두 제외해 왔다. 중국에서 전기차 제조사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판매상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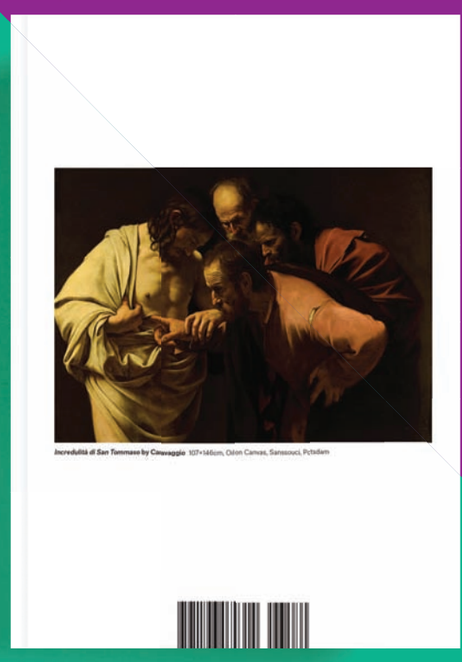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NCM(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번호판 혹은 보조금 혜택을 없애는 조치로 규제하고 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보호 조치라는 해석이다.

결국 국내 제조사의 배터리를 장착했던 현대차는 전략을 수정했다. 애초 현지 준중형 전기차 시장을 겨냥했던 위에동(아반떼 HD) 전기차는 LG화학 배터리 대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했다.

현지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위에동을 바탕으로 중국산 배터리와 아이오닉 전기차의 구동계를 활용해 새 모델을 선보였다. 택시를 포함한 법인차 수요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에동 EV의 성공 여부에 따라 코나의 전기차 버전인 엔씨노 EV 등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신에너지 자동차의 위안정인(原成寅) 부총재는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보호와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 등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 자동차산업은 향후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폭 축소된 보조금 등 정책으로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이 막강한 글로벌 전기차업체들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PART I. 바이오 2018
Chapter 1 바이오스타트업 013
글라이칸 014 / 뉴라클사이언스 016 / 닥터노아 바이오텍 018 / 단디바이오사이언스 020 딥바이오 022 / 바이로큐어 024 바이오네틱스 026 / 바이오뱅크힐링 028 셀라토즈테라퓨틱스 030 스파크바이오파마 034 / 쓰리빌리언 036 앱티스 038 / 에이비엘바이오 042 엑소코바이오 046 / 엔젠바이오 049 엘베이스 054 / 엠디뮨 056 / 엠비디 059 인벤티지랩 061 / 인투셀 064 인포메디텍 066 / 지놈앤컴퍼니 068 지아이이노베이션 072 / 지투지바이오 074 큐로셀 076 / 토모큐브 078 티움바이오 080 / 파로스아이비티 082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084 페프로민 바이오 086 / 폴루스 088 핀 테라퓨틱스 092
Chapter 2-1 바이오테크 1_임상
파이프라인 095 C&C신약연구소 096 / GC녹십자셀 099 강스템바이오텍 104 / 노브메타파마 108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 112 / 메디포스트 116 메디프론디비티 122 / 메티메디제약 127 바이로메드 130 / 바이오큐어팜 134 보령바이젠셀 138 / 브릿지바이오 142 셀리드 145 / 신라젠 151 / 아이진 157 안트로젠 164 / 알테오젠 170 / 에빅스젠 176 에스바이오메딕스 184 / 에스씨엠생명과학 188 올릭스 193 / 유바이오로직스 196 / 유틸렉스 201 이노테라피 207 / 이뮤노맷 테라퓨틱스 212 이뮨온시아 215 / 이수앱지스 217 제넥신 222 / 제이더블유크레아젠 228 젬백스앤카엘 233 / 지엔티파마 239 차바이오텍 247 / 카이노스메드 256 코오롱생명과학 262 / 큐리언트 265 크리스탈지노믹스 271 / 타우피엔유메디칼 277 파멥신 280 / 파미셀 285 / 펩트론 288 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 291
Chapter 2-2 바이오테크 2_임상 준비
파이프라인 297
에스티팜 298 / 올리패스 302 / 옵티팜 305 와이바이오로직스 309 / 지피씨알 313
Chapter 3 진단의료 테크 317
딕스젠 318 / 랩지노믹스 321 / 마크로젠 326 바이오니아 335 / 바이오이즈 342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346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350 / 신테카바이오 354 엠디헬스케어 358 / 옵토레인 361 이노테라피 364 / 이오플로우 370 이원다이애그노믹스 372 / 젠큐릭스 377 지노믹트리 381 / 지노바이오 386 / 천랩 388 클리노믹스 393 / 테라젠이텍스 397 파나진 401 / 프로테옴텍 410 / 플렉센스 416
Chapter 4 플랫폼테크 421
오름 테라퓨틱 422 / 유틸렉스 425 이노테라피 429 / 제노포커스 433 / 젠에딧 438 지플러스생명과학 441 / 툴젠 444
Chapter 5 CMO와 CRO 449
디엠바이오 450 / 바이넥스 454 삼성 바이오로직스 457 / 씨드모젠 460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465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468 우정바이오 472 / 큐베스트바이오 476
Chapter 6 한국의 바이오파마 479
GC녹십자 480 / 대웅제약 483 / 동아ST 487 삼성 바이오에피스 491 / 셀트리온 494 유한양행 500 / 종근당 507 / 한미약품 509 CJ헬스케어 513 / JW 중외제약 515 SK케미칼 516 / 보령제약 518 / 부광약품 520 삼진제약 522 / 일동제약 524 / 제일약품 526 휴온스 527
PART II. 스펙테이터 2018
Chapter 7 성공에 가장 가까워진 실패 531
Chapter 8 독자가 주목한 바이오스펙테이터 543
바이오시밀러, 그 성공적인 데뷔 544
2012, JP모건, 중국 그리고 빌리언 달러 550
CAR-T 556
면역항암제의 병용투여 562
가능성의 새 이름, 마이크로바이옴 569
이유 있는 시끄러움, 크리스퍼 카스9 576
Chapter 9 바이오 학계 동향 583



바이오스펙테이터 퍼냄 / 170×240mm / 본문 596쪽 / 양장제본 / 2018.06.25 펴냄 / 300,000원 / ISBN 979-11-960793-1-4 93570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는
바이오 산업 전문기자들이 1년 동안 모아낸
한국 바이오 산업 생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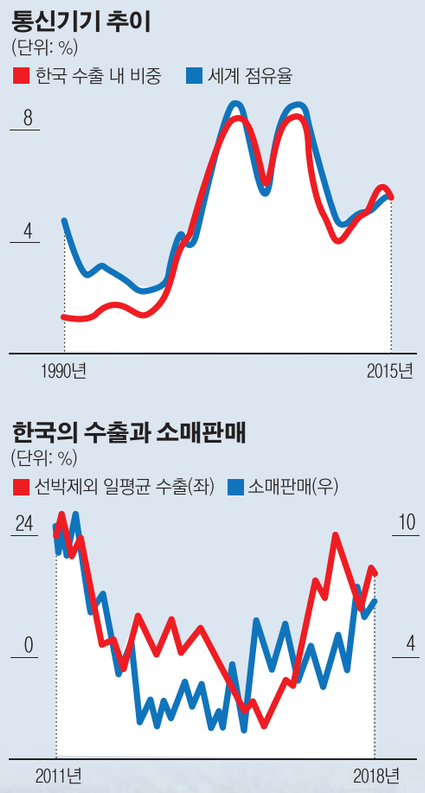
바이오스펙테이터 연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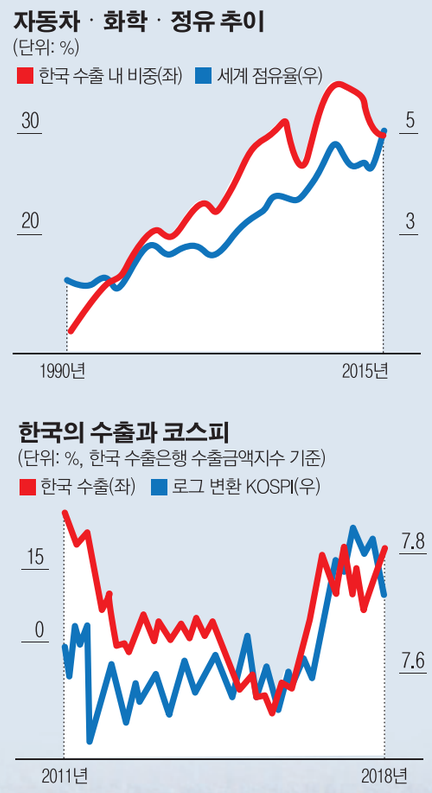
바이오스펙테이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1 이투데이빌딩 2층 / 전화 02-2088-3456 / 팩스 02-2088-8758 / 메일 book@bio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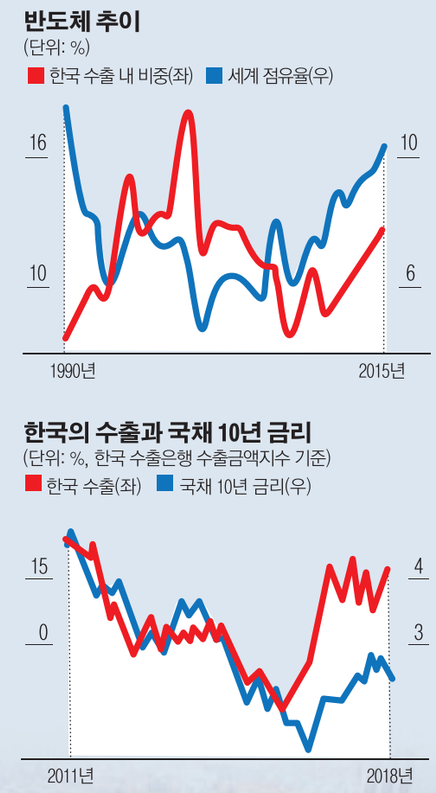
반도체 쏠림·중간재 부진·G2 집중…그래도 수출 희망가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 불안한 시선 3가지

한국 경제는 수출 주도로 성장한 만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특히 요즘같이 내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출 호조는 더더욱 한국경제에 버팀목이 된다. 다만 여전히 △반도체 쏠림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간재 부진 △G2에 집중된 구조 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작년 반도체 수출 기여도 7.2%
전체 수출 증가율의 절반 차지
글로벌 수요변화에 빨리 대응한 결과
中 투자 늘면서 중간재 수출도 반등세
美·中 내수경기에 연동돼 수출 늘 듯

G2 무역분쟁·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 불안 속 수출 호조세는 지속
9월 감소했다 10월 '서프라이즈' 전망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수출史 = 지난해 반도체의 수출 기여도는 7.2%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율의 절반을 차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수출 기여도는 6.4%로 전체 수출 증가율(6.3%)을 웃돈다. 반면 가전제품과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상당수 주력품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거나 보합 수준에 그쳤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 집중화 현상은 세계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1990년 이후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품목은 세계 수출에서도 점유율이 급증했던 품목과 동일했다.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 휴대폰, 2000년 중반에서 2010년 초반까지 차화정(자동차, 화학, 정유), 금융위기 직후 보급이 확대된 스마트폰, 201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수출이 이를 대변한다. 즉, 반도체 쏠림 현상은 한국 기업이 대외 수요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적응한 결과라는 의미다.

이번 반도체 수출 증가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이 배경이 됐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과거 통신기기와 차화정은 약 10년 가까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으며, 2010년부터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음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은 아직 이르다"라고 진단했다.

해외생산 확대로 인한 구조적 수출 감소 요인을 감안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의 수출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 연구원은 "13개 주력 수출품목을 4가지 카테고리(IT, 산업재, 소재, 해외공장이전)로 구분하면 해외공장이전에 포함된 품목(2014년부터 해외생산을 늘린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수출물량 증가가 목도된다"라고 분석했다.

◇중간재 대중국 수출 부진·G2 집중 수출 구조 우려는 '기우' = 중간재 수출 비중 확대는 중국의 부상과 연계된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70~80%를 유지했다. 즉,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며, 중국은 이를 재가공해 세계에 수출하는 분업화가 갖춰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업화 구조는 금융위기 직후 약화됐다. 2000년대 중반 80% 내외에서 유지되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 70%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중간재 수요 약화 △정부의 중간재 국산화 및 가공무역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다.

다행히 2017년부터 중국의 설비가동률은 반등하기 시작했다. 2016년 국무원이 13차 5개년 계획 원년을 맞아 공급측 개혁을 강도 높게 진행한 결과다. 올해에도 대부분 산업의 설비가동률이 개선됐다.특히 비철과 기계, 철강 등 만성적인 공급과잉에 시달렸던 산업 중심으로 가동률이 올라왔다.반도체 등 IT 부품에 이어 한국의 주요 중간재 수출이 집중된 산업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큰 점도 둔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우려 사항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 12.0%로 합산하면 36.8%에 달한다.

하지만 향후 한국 수출은 G2 간 교역 악화에 따른 간접적 파장보다는 양국의 내수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공산이 크다. 2014년 기준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간재 중 64%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최종재 생산 과정에 투입된다. 반면 중국에서 가공돼 최종재로 수출되는 비중은 36%이며, 이 중 7%가 미국으로 흘러간다. 이는 중국 민간투자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다. 2011년 9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중국 투자는 부진했다. 한국 대중국 중간재 수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돼 2015년에는 감소 전환됐다. 2016년 9월부터 중국 투자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자 한국 대중국 중간재 수출 역시 급등하며 현재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반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과 중국의 대미국 소비재 수출은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출구조에 따른 내재적 취약성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다. 세계경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시스템 리스크가 목도되지 않는 한 수출 호조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개월 연속 수출 호조세 지속돼 '안도의 한숨' = 올 들어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등 친노동 정책에 따른 고용시장 부진이 내국인의 소비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년 동월 대비 약 8%의 증가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반 년 만에 4%대로 주저앉았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 규제 완화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비거주자 국내소비 회복세도 정체다.

다행히 이 같은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한국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인다. G2 간 무역 분쟁, 유럽발 정치 잡음, 신흥국 금융 불안 등에도 7월 수출 성적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지난해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17.5%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에도 수출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8.7%의 증가율을 기록, 일평균으로도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올 들어 8월까지 누적수출은 전년 대비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9월과 10월 수출 실적은 쇼크와서프라이즈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월에는 수출 증감률이 (-)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최대 (-)20%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반면 10월의 증가율은 월말 효과, 추석 직전 출고 반영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30%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가난이 내 청춘의 선생이었듯…부딪쳐 보세요”

소설가로 ‘제2 인생’ 걷는 언론학자 김민환 명예교수

‘인생 2모작’이라고 했던가. 자신도 “언론학에 갇혀 산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언론학 외길 인생을 달려왔는데, 8년 전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이후 소설 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역사소설 ‘담징’은 5쇄까지 찍었고, 최근에는 두 번째 장편 소설 ‘눈 속에 핀 꽃’을 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30년간 언론학을 가르쳤던 김민환(73)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얘기다. 원로 언론학자인 그도 문단에서는 신인이나 다름없다. 50여 년간 눌러 담은 소설가로서 꿈을 차근차근 펼치고 있다.

‘담징’과 ‘눈 속에…’는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도에 지은 남은재(南垠齋)에서 탄생했다. 2010년 퇴임 이후 지은 곳이다. ‘눈 속에…’에는 1960~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대학을 다닌 이들의 고뇌와 방황, 좌절과 분투가 어려 있다. 역사와 함께 저자의 자전적 연애담, 아니 ‘자전적 실연담’이 책의 큰 줄기를 이룬다. ‘언론학자’가 아닌 ‘소설가’ 김 교수를 6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J빌딩에서 만났다.

“오랫동안 언론학자로 살아왔지만, 저는 원래 기자가 된 뒤 소설을 쓰는 게 꿈이었어요. 신문방송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그것이었죠. 대학 때 3선 개헌 반대 시위 등 시대적 격랑에 휩싸이다 보니 언론계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에 가서 교수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책은 주인공 최영운이 어느 가을날 종이상자에 담긴 편지 묶음을 받는 것에서 출발한다. 50여 년 전 가슴 속에 품었던 여학생 서윤희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이다. 영운에게 김 교수의 추억이 온전히 투영됐다. 가난한 시골 집안에서 태어나 결핵을 앓다 대학에 4년이나 늦게 들어온 것도, 글솜씨가 빼어나 박정희의 3선 개헌과 종신 집권 시도에 반대하는 선언문과 격문을 도맡아 쓴 것도, 당국으로부터 주동자로 몰리면서 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자가 된 뒤 소설가가 된다는 꿈을 저버린 것도 김 교수의 과거 모습 그대로다.

“자전적 실연 소설이에요. 연애소설이라고 하기엔 연애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윤희’도 ‘화영’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시대 상황은 사실과 거의 부합한다고 보면 돼요. 당시 신문이나 사진지, 책들을 보면서 참고했어요. 핵심 인물들도 주변 인물을 그대로 그려냈고요. 노동운동 분야로 나가서 노동자로서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이들이요. 인물들의 심리는 제 소설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어요. 되도록 사실과 근접하게 가되, 소설적 요소를 가미한 거죠.”

책을 읽다 보면, 영운과 윤희가 서로에게 보낼 편지를 썼을 1967년 1월 1일 0시 5분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윤희를 대신해 딸 수민이 영운에게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그 틈에서 암울했지만 뜨거웠던 청춘이 피어난다.



김민환 교수는 최근 두 번째 장편소설 ‘눈 속에 핀 꽃’을 냈다. 책은 순수하게 사랑에 빠지고 세상의 불의를 참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몸을 던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남들 은퇴할 나이에 꿈 펼쳐”
두 번째 소설 ‘눈 속에 핀 꽃’
유신시대 청춘의 혁명과 사랑 그려

“우리 학생들 BTS 논문 잘 써도
도전하지 않으면 BTS 될 순 없어
가시덤불서 자기 길 개척했으면”

자극적인 요소는 되도록 넣지 않았다. 지나치게 담백한 탓일까. 절친한 감독으로부터 ‘김 선배 소설은 어느 국면에서 주먹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문을 배운 제가 사랑을 무책임하게 그려낼 순 없지 않으냐”며 “최영운이 ‘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여러 개성을 정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연애 소설이 더 큰 울타리를 넘지 못한 이유는 ‘집사람’ 때문이다. “집사람이 보길도로 내려와 살아보더니 요즘은 저보다 보길도를 더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는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집사람이 있어 생활은 편하지만, 존재 자체가 소설적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니까요. 하하.”

영운은 혁명과 학문의 갈림길에서 고뇌했지만, 노동운동이 아닌 교수의 길을 택했다. 매화 같은 여자 윤희는 끝까지 찬 곳에서 민중과 함께했다. 영운의 삶의 지표였던 ‘가난하게 산다.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청계천에 들어가 민중과 산 윤희 집 가훈이 된다.

우연한 기회에 법정에서 마주한 윤희는 ‘큰 사람’이었다. “아, 내가 문제 학생들에 관한 지도 보고서를 쓰는 조무래기로 왜소해진 동안에 윤희는 그야말로 큰 사람이 되었구나.” 영운의 말을 김 교수는 그대로 되뇌었다.

오랜 기간 억눌러졌던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담징’에서 처음 폭발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김 교수는 ‘종이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일본서기에서 서기 610년 고구려 승려인 담징(579~631)이 국사로 일본으로 건너가 종이와 채색화, 맷돌을 처음 보급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7세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제 전공인 언론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 역사의 일부입니다. 자연스럽게 종이의 역사에 관심이 쏠렸죠. 종이는 한지가 최고예요. 1000년 가는 책은 한지로 만들어진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역사를 뒤져도 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서기에 담징이 일본에 종이를 처음 퍼뜨렸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김 교수는 일본 나라 지역을 세 번 다녀오고,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교 서적 40~50권을 읽으면서 담징이 종이 외에도 맷돌, 칠기 등을 일본에 전파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김 교수는 “국사가 민초들에게 맷돌과 칠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불심은 민중에게도 있다는 생각으로 담징이 탁발을 하고 다녔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승이었던 담징은 수행 중에 욕을 떨치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왕사이기 때문에 권력욕과 물욕은 없었겠죠. 남은 것은 애욕입니다. 1949년 불타 없어졌지만, 담징이 금당벽화에 철학이 녹아 있는 미륵불을 그리면서 겪었을 애욕의 수행을 담아낸 거죠. 사랑했던 여인의 눈을 보고 눈동자를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학승의 연애를 그려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고승들을 만나며 조언을 얻었죠.”

‘담징’을 쓰면서 고증에 고증을 거듭한 과정을 들으니, ‘눈 속에 …’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 이유를 짐작하게 됐다.

인터뷰를 마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소설가’ 김 교수에게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고 했다. 본인의 표현처럼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꿈을 이룬’ 그가 생각한 청춘들의 미래가 궁금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과 신병을 한탄하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청춘들이 거친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가시덤불을 헤치면서도 자기 길을 개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화감독 임권택이 한국영화 현대화에 미친 영향, 방탄소년단(BTS)이 우리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논문으로는 제일 잘 써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임권택도 BTS도 될 수 없죠. 부딪치고 도전하며 거칠게 사세요.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도시를 건축하는 조경
박명권 /한숲 /24000원

시간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작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사람들이 공간의 한계를 넘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어떻게 탄생할까.

과도한 도시화로 더는 자투리땅조차 찾기 힘든 오늘날의 도시 공간에서 저자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새로운 설계 요소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눈으로 보이는 공간과 피조물의 디자인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여유와 안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책에는 25년 동안 한국 조경의 초창기부터 조경가로 활동한 저자가 조경 이론과 실천의 경계에서 해 온 고민들이 담겼다. ‘자연과 인간, 과학과 예술, 조경과 도시, 디자인과 문화, 공간과 시간, 채움과 비움, 전통과 한국성’이라는 일곱 가지 화두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경 전문가는 물론 도시 환경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21세기 전후의 중요한 조경 설계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참고서다. 2015년 영국의 디자인 전문 출판사 파이던이 선정한 세계적 조경가 30인 중 유일한 한국 조경가인 저자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과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시 문화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시대를 읽는 새로운 경영학 / 김용민 외 7인
시대가치 / 28000원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세다. 대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고 돈만 밝히는 비인격적인 소유주인 데다 선량한 종업원을 괴롭히고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를 못살게 군다. 또 해외에 좋은 집을 숨겨놓고 호의호식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은 한술 더 뜬다. 시장은 무한경쟁을 부추겨 약자와 서민을 착취하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대기업을 옥죄고 약자 보호 정책을 펴는 것이 최고의 선(善)이라는 주장이 거침없이 나온다. 경영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영학이 소위 ‘보편적 지식’이 되어가는데도 이 사회에 기업이 왜 존재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무엇이며, 기업이 진화하고 발전해 온 경제체제와 역사적 맥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경영학도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8명이 뭉쳤다. 저자들은 기업의 본질과 기업이 시장에서 부단한 혁신 경쟁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 이해해야 경영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경영학원론 교재들과 집필철학과 방향이 달라 독자가 오히려 생소할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솔직하게 머리말에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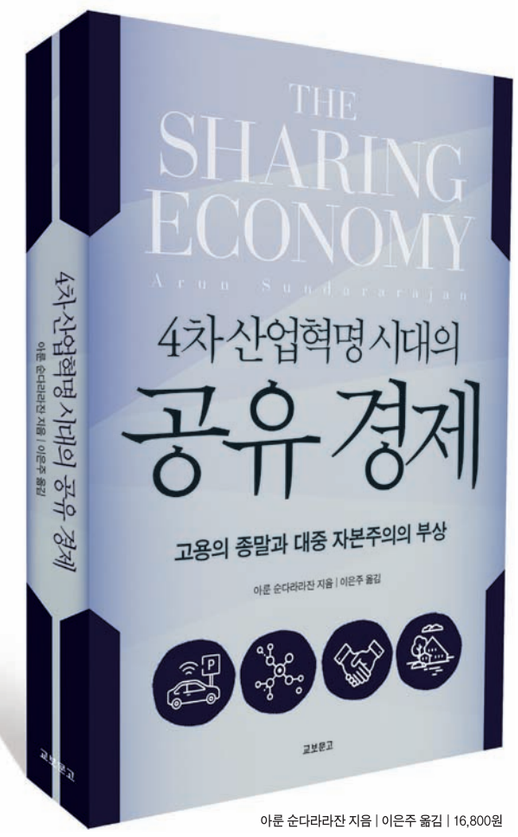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산업,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공유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

‘소유’가 사라진다.
‘고용’이 사라진다.
‘대기업’이 사라진다.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경제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소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살게 된다.
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기보다 독립적 근로자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
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개인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공유 경제의 권위자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래 경제의 단면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교통, 호텔, 은행을 비롯해 모든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경제를 형성하는 힘에 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 할 베리안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공유 경제는 우리가 맞아야 할 운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유 경제가 비즈니스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변화의 파도는 곧 찾아올 것이다.
아룬 순다라라잔의 책보다 이 변화에 대한 더 좋은 지침은 없다. — 에릭 브린욜프슨 MIT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아룬 순다라라잔 지음 | 이은주 옮김 | 16,800원

One Shin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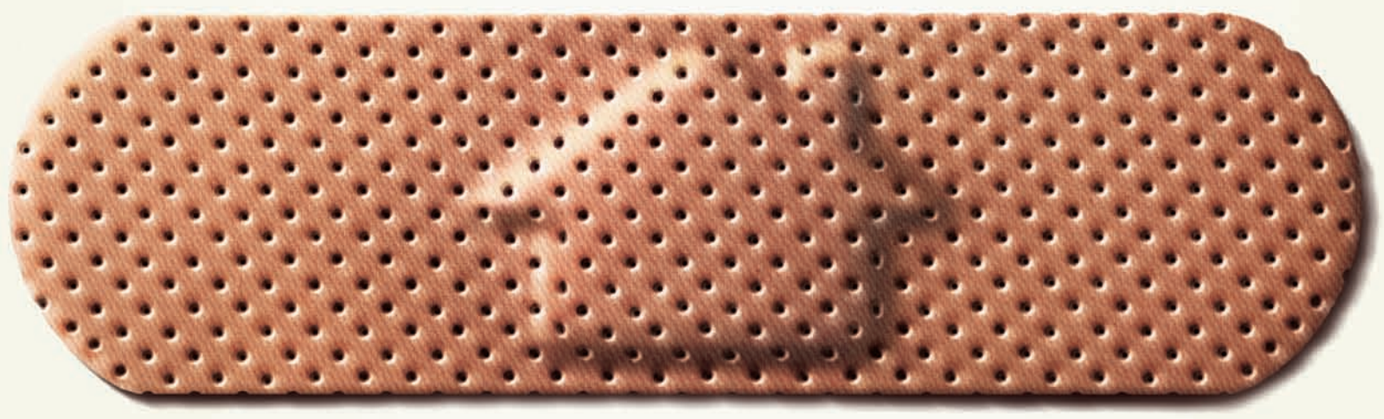
Shinhan

희망이 돋아납니다

이웃의 상처가 아물고
용기의 새살이 돋도록
신한이 희망을 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Hope.
Together.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하며
어려운 가정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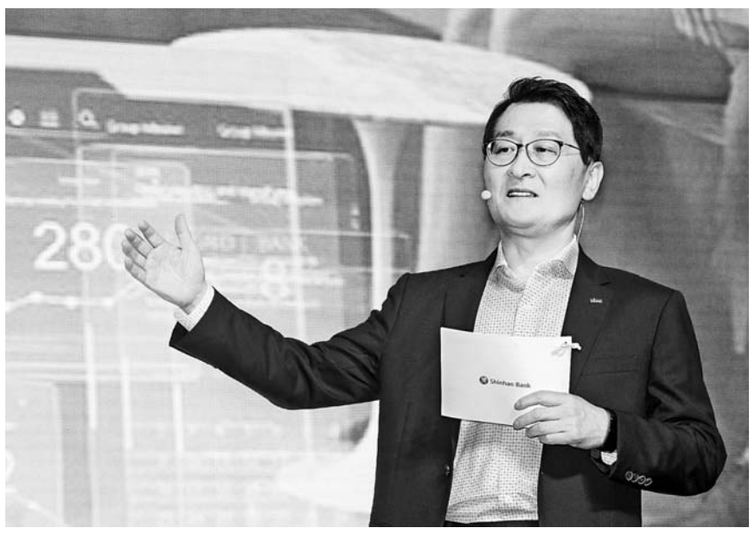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그거 원래 그래? 이런 보수적 은행 문화 깨자"

위성호 신한은행장, 페북 서밋서 금융 비전 피력

"뭐든지 의문 가지고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고 노력
디지털 전환 최종 목표는 고객에 超맞춤형 서비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에서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최종 목표는 '초 맞춤형 서비스의 구현(Super Customization)'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컨시어지(안내인)가 되는 것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10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2018'에 참석해 디지털 금융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돌며 진행하는 행사로, 디지털 경영 전략의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디지털 마케팅의 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200여 개 대기업 임원 및 홍보 담당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총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위 은행장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서 있는 기존 은행들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새로운 영역으로 발 빠르게 확장하려는 리더의 도전과 고민 그리고 해결 과정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무대 연설에 앞서 '신한 SOL' 앱을 소개하는 인터뷰 영상을 통해 앱 다운로드부터 회원 가입, 계좌 개설을 거쳐 지인에게 적금을 선물하기까지 2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이번 행사의 주제인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미래형 비즈니스(Zero Friction Future)'를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위 행장은 선배님들에게 들어온 "그거 원래 그래~"라는 고질적 병폐와 보수적인 기존 은행 특유의 기업 문화에 맞서 '진정한 디지털 리딩뱅크'로 재탄생하기 위해 노력한 '은행업의 재정의(Redefine, Be the NEXT)'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위 행장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CEO(최고경영자)에 올랐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돌이켜보면 뭐든지 의문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며 "이제 금융도 디지털이라는 파괴력 있는 패러다임을 맞아 다르게 보고 변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신한 SOL 앱'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페이스북 디지털 마케팅 성공 사례'로 선정돼 글로벌 페이지에도 등재됐다. 곽진산 기자 jinsan@

은퇴 놓고 오락가락하던 마윈 결국 "1년 후 퇴진"

후계자는 '독신자의 날' 기획한 장융



최근 "은퇴다", "아니다" 등 말이 여러 차례 바뀌었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마윈 회장이 결국 1년 뒤 은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윈 회장은 지금부터 1년 후에 사퇴하며 그 뒤를 장융(張勇·영문 이름 대니얼 장·사진) 현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가 잇는다. 알리바바는 이날 성명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원만한 승계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46세의 장융 CEO는 다국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거쳐 2007년 알리바바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했다. 그다음 해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장터인 타오바오를 책임지는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됐으며, 2011년 기업대고객(B2C) 전자상거래 사업부인 티몰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티몰 사장으로 있을 당시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로 도약한 '독신자의 날'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명성을 얻었다.

알리바바가 성장 부진으로 고전하던 2015년 조나선 루의 뒤를 이어 CEO로 취임하면서 마윈 회장의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7일 마윈 회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마 회장이 만 54세 생일을 맞는 이날 은퇴하고 교육 등 공익사업에 헌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알리바바와 마 회장 측은 지난 주말 자회사인 홍콩 영자지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NYT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마윈 회장은 이날 은퇴가 아니라 후계자 승계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정정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금융안전홀딩스 회장에 조성익



금융안전홀딩스는 7일 조성익〈사진〉 전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을 회장으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안전홀딩스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청호이지캐쉬와 현금수송 전문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의 지주회사다.

조 회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이듬해까지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을 지냈다. 안철우 기자 acw@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에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은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송영록〈사진〉 전 CFO 및 재무담당 부사장을 선임한다고 10일 밝혔다.

송영록 신임 사장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에서 재무 관련 경력을 쌓아오다 2007년 재무 컨트롤러(Finance Controller) 담당 이사로 메트라이프생명에 합류했다. 이후 재무 총괄 담당 전무를 거쳐 2016년 CFO(최고재무책임자)로, 2017년에는 부사장에 선임되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식신 최고기술책임자에 최영훈



푸드테크 업체 식신은 푸드테크 플랫폼 기술 강화를 위해 SK커뮤니케이션즈 CTO 출신의 최영훈〈사진〉 CTO(최고기술책임자)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영훈 CTO는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싸이월드 등 IT 서비스 플랫폼의 기술 전문가로 관련 요직에 26년간 재직했다. 최 CTO는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 포항공대 전자계산학 석사를 졸업하고 SK커뮤니케이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거쳐 NHN넥스트 교수,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최 CTO는 식신의 모든 서비스의 플랫폼 기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및 추천 기능 강화, 블록체인 서비스 기술, O2O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한국콜마 회장〉

중소·중견기업 상생교육 직접 강사 나선 윤동한

교육 여건 부족한 직원들 초청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
"오랫동안 품어온 꿈 실현"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가운데)이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에 참가한 기업 신입사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콜마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상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강사로 나서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국콜마는 지난주 나흘간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콜마 여주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사내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한 윤동한 회장은 이날 교육에 강사로 직접 나서 호응을 얻었다.

윤 회장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실현한 기분"이라며 "지난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임직원 교육에 많이 투자했고, 노하우를 공유해 후배 중소·중견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20개의 중소기업에서 27명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과정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체 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어렵고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교육하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에 교육 시설과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샘표식품 장수비결 배우러 온 중견기업 리더들

한국카본·신영 등 30여명
중견련 주최 기업탐방 행사
지속 가능 성장전략 공유



7~8일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개최한 '국내 우수 중견기업 탐방'에 참가한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들이 충북 오송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혁신성장을 이끌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들이 우수 장수 중견기업 샘표에서 경영철학과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7~8일 이틀간 한국카본, 신영, 오토닉스 등 중견기업 대표 30여 명을 초청해 '국내 우수 중견기업 탐방'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70여 년 업력을 자랑하는 샘표식품의 국내 최초 발효 전문 연구소인 오송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과 이천 공장을 방문해 연구개발 과정, 생산 공정, 혁신활동 등을 둘러봤다.

박용학 샘표식품 연구기획팀장은 "매년 매출액의 4~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고, 연구개발 인력은 전체 임직원의 20%에 달한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샘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미생물과 발효에 관한 기초연구는 무엇보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수준 높은 작업"이라며 "연구원의 창의적 사고를 돕기 위해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의 연구 공간 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과 창업기업의 만남' 간담회에서는 지향성 스피커 전문기업 제이디솔루션 등 6개 창업기업 대표와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들이 만나 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최두선 기자 sun@

바디프랜드, M&A 전문가 함희준 이사 영입



바디프랜드가 인수합병(M&A) 전문 인력인 함희준〈사진〉 이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기업공개(IPO) 준비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 함 이사를 영입했다. 함 이사는 1972년 서울 출생으로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국제관계학 학사, 예일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LG 증권, ABN AMRO, UBS, 다이와증권에서 대기업과 사모펀드, 정부기관 및 해외기업 등의 M&A, 상장, 자본 유치를 주도했다.

함 이사는 M&A 및 자본시장 분야에만 18년 이상 집중했으며 조 단위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기업의 굵직한 거래를 성사했다. 그는 신설 부서인 글로벌전략본부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 진출, M&A, 회사의 성장 전략 수립, 신사업 개발 및 투자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부동산 서비스'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나인와트팀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아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팀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선보인 나인와트(ninewatt)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8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 이번 행사에는 총 49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2일간의 창업캠프(7월26~27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5팀의 수상팀을 선정(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건물에너지 절감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나인와트(ninewatt)'팀은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구성헌 기자 carlove@

통영 폐조선소 마스터플랜 공모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당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영 폐조선소〈사진〉 재생사업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의 '통영 CAMP MARE(캠프 마레)'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에스엘에이엔지니어링(국내, 건축) △Henn GmbH(독일, 건축·도시·조경)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국내, 도시·건축) △유신(국내, 도시·토목·교통) △주식회사메타기획컨설팅(국내, 문화관광콘텐츠)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국내, 부동산컨설팅) △인우플랜(국내, 조경) 등으로 이뤄졌다.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는 세계적인 구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4월 참가 의향서를 모집했다. 5월 참가 의향서 접수 결과,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20개팀이 참여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인사

◆이투데이 △중기IT부장 최영희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독고순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유영철 △군사발전연구센터장 안광수 △국방인력연구센터장 현익재 △국방자원연구센터장 강인호 △전력투자분석센터장 이주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비상대책실장 김동일 △생활방사선안전실장 김용재

◆머니투데이 △MT해양 부산·경남 지방주재기자 강석호

◆국토일보 △총괄부사장 주중석

◆폴리뉴스 △편집국장 임재현

부음

▲서순희 씨 별세, 이정선(탑ENC상무) 씨 부인상, 이준규(CBS 보도국 정치부 기자) 씨 모친상, 백지환(유라하네스 대리) 씨 장모상 = 10일, 가천대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32-460-3444

▲신현옥 씨 별세, 배성호(KBS 춘천총국PD)·연호(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부장)·영미·향미 씨 모친상, 안미모(강원도 의원) 씨 시모상 = 10일, 강원효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33-261-4441

▲신현철(전 유일상선 대표) 씨 별세, 전영숙 씨 남편상, 신대순(현대해상화재보험 전무)·혜승 씨 부친상, 임세중(연세대 의대 교수) 씨 장인상, 이종희 씨 시부상 =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010-2295

▲오병선(전 교육공무원) 씨 별세, 준기(지엔텔이사)·석기(강원일보 문화부장)·정화(자영업) 씨 부친상, 조숙현·장혜련 씨 시부상 = 10일, 강원효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9시, 033-261-4441

▲오완순 씨 별세, 김우상(참좋은여행 영업본부장 부사장) 씨 모친상 = 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2-2258-5940

▲정낙수 씨 별세, 김희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홍보부장) 씨 시부상, 10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12일 오전 5시, 02-3779-2190

▲최춘중 씨 별세, 박충환(전 스포츠조선판매국장) 씨 모친상 = 10일, 강릉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33-610-1444

CEO 칼럼



민경선 ㈜커뮤즈파트너스 대표이사

없는 신제품의 '낄.끼.빠.빠.'

브랜드를 출시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영 다른 방향으로 제품이 출시되기도 하고, 개발 단계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 보니 비로소 왜 지금껏 그와 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다. 생각해 봤던 모양 그대로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지만 열에 아홉은 애초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로 나타난다. 과해진 욕심으로 심지어 변질되기까지 한다.

신규 브랜드를 출시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하는 건 특이성이다.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추론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위해 또 그만큼의 상품 개발자들이 존재한다. 기획자 머릿속엔 '왜 지금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필요 제품이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검색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나열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특이한 제품은 이미 존재함을 알게 된다.

특이성의 의미를 달리 생각해 보자. 무엇인가 세상에 이미 존재하면 그 이후 출시된 제품은 존재의미가 상당히 옅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특이성을 추구하는 당신에게 아마존 한 귀퉁이에 이름 없이 놓여 있는 유사 제품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품 기획자라면 다르다. 유사 제품은 때론 고마운 참고자료가 된다.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눈에 띄는 잘못을 발견하는 게 쉬운 건 사실이다. 유사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이후 소비자 반응을 몇몇이라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 제품 개발자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전에 출시된 유사 제품은 전체적인 제품 기획 흐름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자연스레 제품 기획자 머릿속 아이디어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모든 아이디어는 이미 실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이런 제품을 끝없이 찾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제품 성패 요소가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첫째로 디자인, 둘째로는 타이밍을 꼽고자 한다. 첫눈에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고, 계속 예찬이 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 입소문 시작점의 역할을 한다. 들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각인의 효과가 배가되고, 소문과 실물 디자인이 거의 일치했을 때 소비자는 더욱 환호한다.

'가격 대비 효율', '기회비용', '가심비'와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내포하는지를 안다면 타이밍 또한 신제품 성패의 핵심이 된다.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세상에서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것뿐이다. 타이밍은 상대적인 상황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어젠다를 뒤바꿔준다. 90도 돌려 보도록 소비자 시각을 설득하려면 개발자는 '새로워 보이도록 함'을 추구해야 한다. 디자인과 타이밍이 그 역할을 한다.

'21세기'라는 단어도 새롭지 않을 이 시대에 나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제품은 없다. 이미 등장했고, 누군가 생각했던 것을 조합하고 다듬고 활기를 불어넣을 콘셉트를 잡는 건 기획자의 몫이다. 신제품의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는 신조어)를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자 행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배려하고, 읽어야 한다. 그래야 준비된 그때, 그 새롭지 않을 제품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치더라도 조합하고, 디자인하고, 제때, 제대로 디자인하고 설득할 수 있다. 제품 기획자가 늘 노곤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일환의 Aim High



사회경제부장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는 개뿔

10여 년 전, BMW와 아우디가 세계 최고 자동차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남 좋은 일만 시킨 일이 있다. BMW는 어느 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세계 최우수 자동차로 선정된 BMW로부터"라는 축하 메시지를 각종 매체에 내보냈다.

자신들을 조롱하는 도발에 아우디가 발끈하면서 유치한 싸움이 불붙었다. 아우디는 곧바로 "세계 최우수 자동차로 선정된 걸 축하한다. 르망24 레이스에서 6회 연속 우승한 아우디로부터"라고 받아쳤다. BMW의 내구성을 비웃는 보복 공격이었다.

얼마 뒤 난데없이 일본차가 끼어들었다. 스바루는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아우디와 BMW에 축하를 보낸다. 세계 최우수 엔진에 선정된 스바루로부터"라며 숟가락을 얹었다.

명차들의 다툼이라 하기엔 상황이 애매해질 즈음, 한 장의 사진이 상황을 종결시켰다. 근사한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가소롭다는 미소를 띠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날린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벤틀리'라는 브랜드만 덩그러니 새겨 놓았을 뿐이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날 이후 오랫동안 입을 다물었다. 소비자들은 벤틀리라는 이름 앞에 모두가 쭈글이가 된 일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몰라도 상관없다. 벤틀리니까.

스마트폰 시장의 세계 1위는 애매하다. '삼성이지' 싶다가 화웨이인 듯도 하다. '애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확실한 현상은 남들이 엎치락뒤치락 엉키는 사이 애플이 저 멀리 달아난다는 것.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 그냥 애플이니까.

애플은 잡스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았다. 여전히 혁신을 내세우지만 기술은 새롭지 않고, 성능은 놀랍지 않았다.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갑질에 가까웠다. 혹평이 쏟아지고, 판매 감소를 점치는 전문가들은 넘쳐났다. "애플은 끝났다"가 대세였다.

그런데 떠들썩한 말잔치 속에 '앱등이' 혹은 '애플빠'들은 조용히 어디론가 모여들었다. 묵묵히 번호표를 받아든 뒤 긴 줄을 만들어 냈다.

진보한 기술, 뛰어난 성능은 더 앞선 기술과 더 나은 성능에 쫓기는 무한경쟁을 부른다. 하지만 애플은 기술로 경쟁하지 않는다. 우연한 기회에 만난 애플 본사 사람들은 경쟁자로 구글을 꼽았다. 구글폰이 아니라 "구글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기 때문"이란다.

추격자들은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아이폰은 '더 나은 삶'에 집중한다.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에서도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그들은 아디다스 대신 닌텐도를 주시한다. 사람들이 게임기를 붙잡고 방구석에 틀어박히면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매년 이맘때면 봐왔던 익숙한 풍경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되는 12일(현지시간), 이번에도 앱등이들이 좀비처럼 애플 스토어 앞에 모여들지 궁금하다.

트레일러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것이 없다", "비싸다", "안 팔릴 것", "M자형 탈모폰"….

정작 아이폰 사용자들은 누가 뭐라 하든 별 관심이 없다. 왜 아이폰을 고집하는지 물어보면 이해 못할 대답이 돌아온다. "그냥 편해서", "예뻐서" 정도는 양반이고 "잘 모르겠다"도 상당수다. "스냅드래곤을 압도하는 AP(중앙처리장치)의 성능", "안드로이드폰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적화"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기 힘든 이야기는 언론이나 전문가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경쟁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울지도 모를 이런 현상은 사실 사용자의 대답 안에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앱등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기계가 아니다. 새 아이폰이 가져다 줄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다. 실제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앱등이는 그리 믿는다. 아이폰이 기계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이 아닐는지.

알쏭語 달쏭思

장군(將軍) 제독(提督) 도독(都督)

육군이나 공군의 별(star), 즉 장성(將星)들에 대한 호칭은 장군인데 해군 장성에게는 제독 혹은 도독이라는 호칭을 적잖게 사용한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 그러한 예이고 우리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더러 제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작전을 펼친 명나라의 장군 진린(陳璘, 1543~1607)에게는 도독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한다.

제독(提督)은 중국 청나라 때 둔 '수사제독(水師提督)'이라는 관직명에서 유래한 말이다. '수사(水師)'의 '師'는 '스승'이 아니라 '군대'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사는 수군, 즉 해군이라는 뜻이다. 제독의 각 글자는 '이끌 제', '감독할 독'이라고 훈독하며 '이끌어 가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는 직위'를 이르는 말이다. 즉 지휘관이라는 뜻이다.

청나라 말기에 외세가 밀려오자, 외국 함대를 막을 해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북상을 막기 위해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을 두었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서양 함대를 막을 양으로 복건수사제독(福建水師提督), 광동수사제독(廣東水師提督)을 배치했으며, 장강(長江)을 타고 오르는 외국 함대를 저지하기 위해 장강수사제독(長江水師提督)을 두었다.

이때부터 해군 지휘관을 제독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해군 장성을 제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청나라 군제임을 상기한다면 굳이 제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필요 없이 육·해·공군 모두 동일하게 장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독은 앞서 말한 명나라 장군 진린의 직위가 '도독(都督)'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함께 그를 거론할 때 사용했던 용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이다. 여수의 섬마을에는 진린을 기리는 '도독마을'이 있다고 한다. 기리는 명분을 뚜렷하게 잘 찾아야 아름다운 기림이 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e모저모 당진 농협 턴 50대 여성 강도 3시간 만에 검거 "아무리 빚에 힘들어도…"



충남 당진의 한 농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가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도가 빼앗아 달아났던 현금 2750만 원 중 500만 원을 제외한 2250만 원도 회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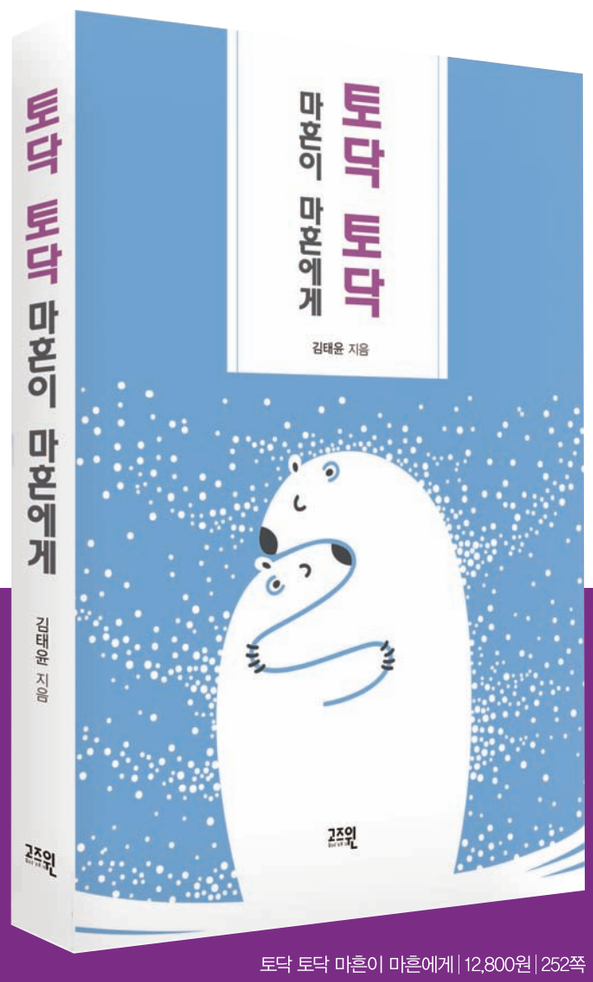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께 50대 여성 A 씨가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쓰고 당진시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타정기(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전동 못총)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했다.

A 씨는 직원이 건네준 현금 27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챙긴 뒤 농협 인근에 세워둔 차를 타고 달아났다.

농협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조회해 신원을 파악,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3시간 30여 분 만인 이날 낮 12시 35분께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빚 4억 원 등 가족 명의로 빚이 9억 원 있는데, 대출금 등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네티즌은 "아무리 빚에 힘들어도 그렇지 강도 행각을 벌여서야 되겠느냐"며 A 씨의 행동을 질타했다. 네이버 아이디 'jung****'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왜 이렇게 강도가 자주 드는지 모르겠다. 강도 때문에라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는 방범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bloo*****'는 "생계형 범죄가 늘어간다는 건 그만큼 국민이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뭔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mhki****'는 "애초에 빚도 적당히 져야지. 감당할 만큼 대출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빚 있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12,800원 | 252쪽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데스크칼럼



한지운
온라인뉴스부장

바이럴에 빈 댓글 달기

커뮤니티에서 블로그, SNS까지…. '바이럴마케팅(ViralMarketing·이하바이럴)'이 침투하지 않은 온라인 영역은 없다. 전 정권의 정치 댓글 공작이 지난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바이럴이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해졌지만,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바이럴은 강력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었다.

바이럴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 전후다. 음식점, 게임, IT제품, 쇼핑 등이 당시 주된 대상이었다. 특히 대규모 광고비를 사용할 수 없었던 IT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당시 인기가 있었던 MP3플레이어나 PMP 등은 소비자들의 평가가 중요했고, 좋은 평가를 만들기 위해 직원 일부가 주요 IT 관련 커뮤니티에서 상주하며 활동하거나, 바이럴 외주업체에 이른바 '밑밥'을 까는 작업을 발주했다. 일부 IT 커뮤니티는 아예 바이럴 관련 사업을 차리고, 월 1000만 원에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제품을 은밀하게 홍보해 주겠다는 웃지 못할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후 바이럴 사업은 분야를 급격히 늘렸고, 현재는 음원차트 순위 조작부터 미담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주식 작전 세력의 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할 정도다.

바이럴은 아이템에 따라 노출하는 채널과 방식도 각기 다르다. 음식점의 경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집중적으로 사진을 노출한다. 최근 음식점 창업 때 주요 포털 스폰서 광고와 블로그 50개 노출 작업은 기본 패키지가 됐을 정도다.

게임은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집중적으로 대세인 것처럼 소비자 평을 올리고, 유튜브와 트위치 스트리머를 중심으로 게임 방송을 진행한다. 대가는 물론 스트리머에게 지급된다. 앱스토어 별점주기 작업으로 다운로드 상위권 올리기 작업도 병행한다.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몸매 좋은 여성의 상품평 사진을 대형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성을 만들어 유입을 유도한다. 방송 광고가 금지된 담배는 인스타그램이 주 활동 무대다. 패피(패션과 피플의 합성어)들의 라이프샷 속 소지품, 또는 고가의 차량 실내 샷에 자사의 담배를 살짝 끼워 홍보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 들어 가장 인기가 있었던 분야는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지난해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거래소마다 경쟁이 붙자 바이럴 요청이 쇄도했고, 월 바이럴 비용이 수억 단위에 달했다. 바이럴 업체들은 '어디가 거래가 편리하다', '여기서 10배 벌었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반면, 경쟁 거래소는 '인출이 잘 안 된다' 등의 각종 험담을 하며 투자자들을 유도했다.

최근의 바이럴은 더욱 정교해졌다. 현재 바이럴 업체들은 강남 테헤란로에 대거 자리를 잡고 있다. 한때 치솟는 인건비에 중국으로 사업장을 이동하고 중국 동포를 고용했으나, 소비자들이 쉽사리 바이럴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정체가 탄로 나는 일까지 벌어지자 한국으로 유턴한 것이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글 올리고 엑셀에 글 올린 URL 링크 개수 세어서 발주 기업에 비용을 요청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글 작성을 넘어 띄우려는 아이템에 따라 유명 스트리머나 인스타그래머 등을 섭외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팅' 작업인데요. 주요 커뮤니티의 게시판마다 성향을 분석하고 일반 회원처럼 바이럴 작업자를 심습니다. 이게 성패를 좌우하죠." 최근 만난 한 바이럴 업체 사장의 말이다.

과거 흥했던 블로그가 이제는 음식점 광고판으로 전락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한 바이럴이 넘쳐나게 되면 이용자들은 떠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커뮤니티들이 바이럴로 의심되는 글에 '빈 댓글 달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댓글 하나에 500원가량을 받는 바이럴 수익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자정적인 움직임이다. 돈으로 무장한 '칼'이 이길지, 온라인 공간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막아낼지 궁금해진다.

goguma@

객석



양일영 르노삼성자동차 사외홍보팀 과장

비움의 여유, 채움의 여유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할 무렵이었다. 다니던 직장을 호기롭게 그만두고 혼자 유럽 여행에 나섰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목적도 있었다. 여행 초기, 몇몇 지인들과 만날 약속을 빼면 정해진 일정이 없었다. 나머지는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 이미 유럽 여행을 한 차례 다녀왔던 터라 별다른 걱정도 없었다. 그런데 여행의 최대 위기는 고작 5일 만에 찾아왔다.

파리에서 다음 목적지인 마르세이유로 이동하는 사이, 세계적인 연극축제가 열리던 프랑스 남부의 한 도시를 찾은 게 늦은 오후였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으니 숙소도 없었다. 그냥 밤새 거리를 걷기로 했다. 다행히 꽤 늦은 시간까지 거리는 축제로 활기찼다. 다만 커다란 짐을 맡길 곳이 없다는 건 문제였다. 결국 밤새 양손 가득 무겁고 커다란 짐을 들고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위기는 긴장의 끝에 찾아왔다. 예정에 없었던 일정을 무사히 잘 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음 날 새벽 첫 기차를 기다렸다. 긴장이 풀렸던지 나도 모르게 슬며시 잠이 들고 말았다. 그렇다. 난 그렇게 갖고 있던 모든 짐을 도둑맞았다.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을 제외하면 남은 것은 신용카드 한 장이 유일했다.

마음만 무거워질 뿐 바뀌는 건 없었다. 어설펐던 유럽 여행 경험만 믿고 자만했던 탓이다. 여행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중 거짓말처럼 마음이 가벼워졌다. 모든 짐이 나의 곁을 떠나가니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 대신 몸이 가벼워지니 오히려 여행은 풍성해졌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상 밖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임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되돌아갔던 파리는 그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도시였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채움의 여유를 좇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비움의 여유도 있음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기자수첩



김벼리 금융부/kimstar1215@

미래 불확실성을 파는 보험

"우리는 미래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보험에는 복잡한 상품들이 수없이 많다. 한 보험 상품을 100%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든 상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본 원리가 있다. 미래의 지출에 대비해 오늘부터 미리 돈을 차곡차곡 쓰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험 가입은 일찌감치 미래를 사두는 행위가 된다.

보험과 그 산업이 태생부터 필수불가결하면서도, 지극히 까다로운 이유다.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보험사들의 고충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해도 불확실성의 결과에 따른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을 담보로 가입자들의 현재 가치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일반인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사실상 불치병 수준이다. 생존 기간도 짧았다. 암 치료는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다. 암보험 상품을 팔 때 의학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생존율과 그 기간이 개선될지 몰랐을 것이다. 암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급한 치료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요양병원에 머물면서 안정을 찾는 것이 보통의 치료 과정이 되리란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 걸릴지 모를 암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20여 년이나 지난 미래에 암에 걸려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줄 몰랐을 것이다. 의학기술 발전, 요양병동의 일반화 등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 불확실성이다. 이 '요지경' 속에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불확실성을 거래하는 것이야말로 보험이라는 점이다. "지금처럼 요양병원이 활성화하고 생존율이 높을 줄 알았다면, 애초에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이 공허한 까닭이다.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엘리트 공무원도 못 푸는 두 문제

오랫동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를 출입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주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를 쓰는 대상을 '출입처'라고 하고, '출입한다'는 표현을 쓴다.

경제부처가 주 출입처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많다. 일반 공무원도 아니고,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 합격한 공무원들이다. 소위 엘리트 공무원들이다. 엘리트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이다. 오래 출입해 친한 공무원들이 여럿 있다. 최근에 공교롭게 이들과 만나 부동산과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물론 40~50대 남성들이 공적으로 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개인적인 이야기이다 보니 알파벳 머리글자로 처리했다. 만난 순서대로다.

A 과장의 고민은 부동산이었다.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야 할까, 아니면 서울에 사야 할까가 고민의 핵심이었다. 기자 주변의 사람들은 경제신문에 다니는 기자라면 모두 부동산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혹은 증권전문가라고 짐작한다. A 과장도 지긋지긋한 전세살이를 끝내고 아파트를 사고 싶다며 어디에 사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기자가 미처 답을 못했는데, 동석한 한 공무원이 무조건 서울에 사야지 무슨 말이냐고 정색을 했다. 세종이 2배 오르면 서울은 10배 오른다는 게 이 공무원의 설명이었다.

월요일 오후에 만난 B 과장은 얼굴이 핼쑥했다. 요즘 경제부처 공무원이 일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유난히 심해서 주말에 쉬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B 과장은 주말 내내 고3 자녀의 자소서(요즘엔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라고 줄여 부른다)를 썼다고 하소연했다. 자소서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업체까지 갔다 왔다고 했다. 한 번 컨설팅에 30만~60만 원 정도를 낸다는 소개와 함께였다. 아직 애가 없는 기자 처지에서 교육 분야는 생소해 재미있게 들었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불법적으로 자소서 컨설팅도 한단다. 모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지인들의 전화를 절대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학생생활기록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관리해 주는 학원까지 등장했다는 얘기가 가장 흥미진진했다. 일부 교사들이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고쳤다가 수갑을 찼다는 얘기까지 돈다고 했다. 취재차 B 과장을 만났는데 교육 얘기만 하다 헤어졌다.

C 사무관의 고민은 다시 부동산이었다.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에 전세를 사는데, 최근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억 원이나 올려 달라고 해서 급히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소위 실·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도 만난다. 이들과는 부동산, 교육 문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 고위 관료쯤 되면 다들 아파트 하나씩 있고 자녀들은 이미 다 커서 졸업을 했기 때문이다. 예외는 있다. 지금은 차관급인 한 관료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논쟁거리가 됐던 어느 날 기자에게 취재를 해보라며, 강남에 아파트 없는 관료는 자신 빼고는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 어렵다는 행시를 통과한 엘리트 공무원들도 부동산, 교육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고민하고 있을 일반 독자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한다.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지만 부동산, 교육 문제도 결국 이런 고민이 모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soqood@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헌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THEME REPORT 브라보 농촌사랑

PART1. 강원도 평창군수 인터뷰 – 한왕기 평창군수가 그리는 평창의 미래 지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PART2. 평창군 귀농·귀촌 정책 현황 – 도시인이여, 평창으로 오라
준비된 귀촌이 성공한 귀농인이 된다

PART3. NH농협은행의 역할 –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 영업 본부장
"농민이 기뻐하는 은행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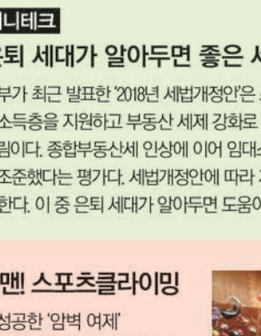
제2인생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인생 후배도 돕는 신중년 신직업 '산업카운슬러'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듣는 힘이 되는 조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이런 상담자의 역할을 과거에는 형제나 가족, 이웃 등이 맡아왔지만, 핵가족화와 이웃 간의 교류 단절 등 달라진 환경으로 대체할 대상이 필요해졌다. 이 역할을 최근에는 카운슬러, 상담심리사 등으로 불리는 인력들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산업카운슬러는 최근 시니어의 새로운 직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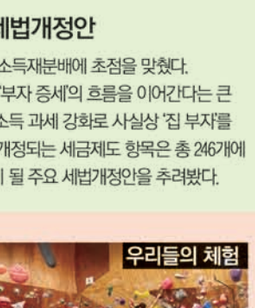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게 아닌 미지근한 건 싫어!
꽃에서, 어떤 이는 생명의 환희를 본다. 어떤 이는 상처 어린 역정을 느낀다. 원주 백운산 자락 용수골로 귀농한 김용길(67) 씨의 눈은 다른 걸 본다. 꽃을 '자연의 문지방'이라 읽는다. 꽃을 애호하는 감수성이 자연과 어울리는 삶 또는 자연스러운 시골살이의 가장 믿을 만한 밑천이란다. 꽃을, 자연을, 마치 형제처럼 사랑하는 정서부터 기르시오! 귀촌·귀농 희망자들에게 전하는 김 씨의 메시지란 대략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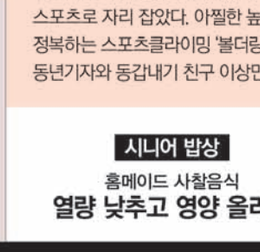


신화보가 만난 사람


소설의 삶이현실의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
소설가 김탁환


한복 뒤에 품은 마음을 깁다
대한민국 대표 한복 장인 '박술녀'


"유품정리인이자 전문유족으로 남고 싶어"
키퍼스코리아 대표 김석중


머니테크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오늘만큼은 나도 스파이더맨! 스포츠클라이밍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등반에 성공한 '암벽 여제' 김자인 선수의 영향으로 몇 년 새 스포츠 클라이밍이 친근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아찔한 높이의 인공 암벽을 맨손으로 정복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볼더링' 종목에 정원일(62) 동년기자와 동갑내기 친구 이상민(62) 씨가 함께 도전해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열량 낮추고 영양 올리고

부치지 못한 편지
고재종 시인
35년 전 선연한 그때 기억 속의 큰 가르침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100% TV
삼성 QLED

| 컬러볼륨100% |

그 어떤 TV로도 볼 수 없었던 컬러 속의 미세한 차이 - QLED TV의 100% 컬러볼륨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장면 속에 존재하는 컬러의 모든 디테일을 경험하는 순간, 영상의 감동은 100%가 될 것입니다

※100% 컬러볼륨 구현 인증 획득 (DCI-P3 기준) 독일 VDE 컬러볼륨 테스트 검증 기준. 2017년12월 ※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 HDR2000 / 눈부심 방지 패널 |

TV는 어두운 곳에서만 선명하다는 생각은 그만. QLED TV는 어두운 곳에서든 밝은 곳에서든, 어두운 영상은 물론 밝은 영상을 볼 때도 언제나 선명한 화질만을 선사합니다

| 화질 노화 없는 화면 |

고가의 프리미엄 TV가 몇 년도 안돼서 화면에 잔상이 생기면 어떨까요? 변하지 않는 퀀텀닷 소재의 QLED TV는 잔상과 같은 화질 노화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압도적인 화질이 오랫동안 유지되니까요

SAMSUNG